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통합교과 쓰기 활동 분석 연구

Analysis of Integrated Subject Writing Activities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좌 은 정

2019년 2월

통합교과 쓰기 활동 분석 연구

Analysis of Integrated Subject Writing Activities

지도교수 전 제 응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좌 은 정

2018년 10월



좌 은 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주섭 인

심사위원 윤치부 인

심사위원 전제응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12월

목 차

국문 초록	5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 내용 및 연구의 제한점	5
II. 통합교과 쓰기의 이론적 배경	6
1. 통합교과의 변천 과정 및 성격	6
2. 쓰기 교수·학습의 이해	10
3. 교과 문식성과 기능교과로서 국어교과와 타 교과 간 통합	17
III. 연구방법	20
1. 연구대상	20
2. 분석기준	21
3. 분석의 방법	23
IV. 통합 교과의 쓰기 활동 분석	24
1.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한 쓰기 활동 분석	24
2. 통합교과서 및 지도서에 나타난 쓰기 활동 분석	38
3. 분석결과 및 논의	66
V. 결론 및 시사점	70
참고 문헌	72
ABSTRACT	75

표 목 차

〈표Ⅱ-1〉 쓰기 영역 지도 내용 체계표	12
〈표Ⅳ-1〉 국어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통합교과 성취기준	36
〈표Ⅳ-2〉 1-1학기 국어과 쓰기 성취기준 분석	38
〈표Ⅳ-3〉 1-1 봄 쓰기 활동 분석	39
〈표Ⅳ-4〉 1-1 여름 쓰기 활동 분석	40
〈표Ⅳ-5〉 1-2학기 국어과 쓰기 성취기준 분석	42
〈표Ⅳ-6〉 1-2 가을 쓰기 활동 분석	44
〈표Ⅳ-7〉 1-2 겨울 쓰기 활동 분석	45
〈표Ⅳ-8〉 1-2학기 국어과 쓰기 성취기준 분석	47
〈표Ⅳ-9〉 2-1 봄 쓰기 활동 분석	48
〈표Ⅳ-10〉 2-1 봄 마인드맵 작성하기 활동	49
〈표Ⅳ-11〉 2-1 국어과와 통합교과에 실린 마인드맵 비교	50
〈표Ⅳ-12〉 2-1 여름 쓰기 활동 분석	51
〈표Ⅳ-13〉 2-1학기 국어과 쓰기 성취기준 분석	52
〈표Ⅳ-14〉 2-2 가을 쓰기 활동 분석	53
〈표Ⅳ-15〉 쓰기 활동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필요한 쓰기 활동 내용	55
〈표Ⅳ-16〉 내가 하고 싶은 겨울놀이 조사하기 글쓰기 활동	57
〈표Ⅳ-17〉 나를 소개하는 글쓰기 활동	59
〈표Ⅳ-18〉 일기예보 놀이 글쓰기 활동	60
〈표Ⅳ-19〉 동네 사람들을 만나요 글쓰기 활동	62
〈표Ⅳ-20〉 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뉴스로 만드는 글쓰기 활동	63

표 목 차

〈표IV-21〉 고마운 분들에게 편지 글쓰기 활동	64
〈표IV-22〉 우리 동네 소식지 만들기 글쓰기 활동	65

국 문 초 록

통합교과 쓰기 활동 분석 연구

작 은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전 제 응

본 연구는 초등학교 통합교과에 나타난 쓰기 활동을 국어과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장에서는 통합교과의 변천과정과 성격을 알아보고, 국어 쓰기 교육의 성격과 쓰기교육의 지도 원리를 알아본 후 기능교과로서 국어교과와 타 교과 간 통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교과문식성과 통합교육의 관계를 알아보고 언어기능과 전략을 얼마나 잘 전이하여 학습하는지에 따라 학습자가 교과를 배우는 학습수준이 달라짐을 서술하였다.

III장에는 통합교과의 쓰기 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2가지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IV장에서는 통합교과에서의 쓰기 활동이 국어과 쓰기 성취기준과 비교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학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에서는 모두 53번의 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국어과의 쓰기 ‘방법’교육이 필요하거나 국어과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학습 위계가 맞지 않은 쓰기 활동이 7번 추출되었다. 국어과의 쓰기 방법이나 국어과와의 위계가 맞지 않는 쓰기 활동이 통합교과에 바로 제시됨으로써 교사의 개인적 경험이나 전

문적 지식, 학급상황에 따라 글쓰기 활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가 되지 않는 쓰기 활동도 모두 21개 추출되었는데 이는 전체의 약 40%에 이른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쓰기 성취기준은 한글을 깨치고 학습자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학습 결과를 문자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쓰기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으며 62차시 내외로 확대됨으로써 기초·기본 교육을 강화하였다. 성취기준과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통합교과의 쓰기 활동 수준과 국어 교과서의 쓰기 활동 수준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학생들의 쓰기 학습 부담뿐만 아니라 교사의 학생 지도와 통합교과의 학습 목표 도달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교과에서는 국어과와 연계된 성취기준을 밝히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성취기준을 반영한 교과서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별 쓰기 활동에 대하여 난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학생, 교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범교과 쓰기에 대한 직접적인 상호교섭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주요어 : 통합 교과, 쓰기 활동, 성취 기준, 통합교과서, 국어교과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범교과적 언어 교육은 국어과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모든 교과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동료 학습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그 교과 공동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담화 관습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또한 언어는 주요한 사고의 도구이며 모든 교과는 언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언어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국어교과와 타 교과 간 통합교육은 필수적이다(이경화·육인경, 2016).

최근 들어 교과마다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그 교과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교과에서는 교과서에 서사성을 갖춘 이야기 제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교수·학습에서 읽기 전략을 지도하거나 형식적·비형식적 쓰기와 토론·토의 활동 등 언어적 표현 활동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언어를 통한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격에서 “국어 교과가 다른 교과의 학습 및 비교과 활동과 범교과적으로 연계된다.”는 특성이 있으며 ‘국어’의 교수·학습과 평가는 “학습자가 다양한 차원의 통합적 활동을 통하여 교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15).

과학 교과에서는 ‘과학 글쓰기’라는 독자적인 이름으로 범교과 쓰기¹⁾ 활동을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통합교과 지도서에도 ‘국어와 수학에서 배운 교과 내용과 기능들을 주제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도 기능적으로 연계·통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면서 단위마다 연계된 국어과의 성취기준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통합교과에서는 국어과의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도 기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세 교과의 주제통합은 이루어

1) 박영목(2008)은 ‘쓰기’, ‘작문’, ‘글쓰기’가 같은 의미로 사용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쓰기’, ‘작문’, ‘글쓰기’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졌으나 국어과와의 범교과적 통합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즉 통합교과에서는 국어과와의 연계를 시도하면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통합교과서에 등장하는 쓰기 내용은 국어 교과에 방법적인 글쓰기와 성취기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범교과적 언어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더욱 확장·심화될 필요는 있으며 국어과와 연계된 치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 국어 능력의 발달 특성에 맞게 통합교과 언어교육이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어과에서 제시하는 발달단계에 맞춘 위계성과 맞지 않게 통합교과서 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합교과 지도서에 기술하고 있는 연계된 국어과와의 성취기준이 통합교과서에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실제적인 연계가 되지 않았다. 국어과와 상호성을 유지하면서 통합교과 교육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 및 통합 방법에 대하여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교과서 속에 나타난 쓰기 관련 부분만 추출하여 국어과에서 제시하고 가르치는 내용과 얼마만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는 통합교과에 나타난 쓰기 양상을 분석하고 국어과와의 연계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통합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통합교과와 범교과 학습에 대한 두 가지 연구 영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가. 통합교과의 위상에 관한 연구

이환기(2015)는 통합교육의 성격에 대하여 교육내용면에서는 유치원과 초등 3

학년 교과교육과 연결되고 생활교육과 분과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법론적으로는 주제중심으로 구성되어 특별한 지식의 체계를 따르지 않는 탈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통합교과 수업은 교사의 통합교과에 대한 안목에 따라 다양한 수준차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강충열(2011)은 2009 개정 초등통합교육과정에 주제별 교과서가 도입되면서 주제별 교과서의 세 가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초등통합교육과정에 탈학문적 접근의 도입, 둘째 초등학교 1~2학년 아동들의 발달적 특징에 적합한 통합교육과정 유형의 도입, 셋째 초등학교 1~2학년에 교과교육과정과 통합교육과정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 초등통합교육과정의 발달적 적합성을 제고한 것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진일보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제별 교과서에 따른 통합이고 국어과와 연계된 통합을 의미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종원과 이경진(2017)은 통합교과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학년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통합교육과정의 궁극적 목적은 전 교과를 풀어헤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분과로 가르칠 것은 분과로 가르치는 서로 상보적인 이중적 구조를 교육과정 내에 구현해야 하며, 1~2학년의 주제 중심의 통합교과는 외국의 활동학습(Classroom activity)의 형태처럼 모든 학년에 적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하였다. 통합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4차 교육과정 시기에 교육과정 상에 분리되어 있는 8개 교과를 교과서를 모아서 세 권의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매우 실험적인 발상이었지만(조상연, 2015) 통합교과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신선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진다.

나. 범교과 쓰기에 관한 연구

쓰기 활동이 국어과 교과를 넘어 다른 교과로까지 범교과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이주섭(1998)은 범교과적 쓰기를 ‘국어과를 포함한 전체 교육과정에서의 쓰기’로 보고, 국어과에서의 쓰기 방법에 대한 학습을 의미하는 쓰기학습과 타 교과에서의 학습을 위해 국어과의 쓰기 방법을 활용하는 학습쓰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정의한 범교과적 쓰기의 개념은 범교과 쓰기 개념 정의에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 왔다.

박혜경(2009)은 내용교과의 담화 방식과 범교과적 쓰기의 용도에 적합한 범교과적 쓰기 과제를 개발하였다. 내용교과의 텍스트 특성을 밝히고 이러한 특성을 잘 구현하여 쓰기 과제를 생성하여 제시하였다. 쓰기 과제 개발에서의 교과 내용 지식과 쓰기의 적절한 결합을 강조하였다. 범교과 쓰기의 목적을 교과의 학습력과 쓰기 능력 신장으로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영민 등(2013)은 학습 작문은 내용교과 영역에서 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쓰기 활동을 말한다고 하였다. ‘학습 작문’이 일반적 쓰기와는 그 형태와 내용을 달리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내용교과 영역에서의 학습 작문을 통해 작문 능력이 신장될 수 있으며, 작문을 통해 교과를 학습함에 있어 학습자의 학습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제웅(2016)은 범교과 쓰기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도구주의 관점, 탈도구주의 관점과 상호주의 관점이다. 도구주의 관점과 탈도구주의 관점들은 국어교과의 쓰기 학습과 범교과의 학습 쓰기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였음을 비판하고 ‘상호주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내용교과 영역과 국어과의 쓰기 영역을 따로 분리하여 보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틀로 접근한다. 국어과 쓰기의 방법과 내용교과의 학습 내용 간의 직접적인 상호교섭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국어교과 쓰기 활동 속에 과학교과의 학습 성취 기준의 내용이 들어올 수 있고, 과학교과의 탐구 활동 속에 국어교과의 쓰기 내용이 직접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직접적인 상호교섭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내용의 한계를 가지는 국어과 쓰기와 교수·학습 방법상의 한계를 가지는 내용교과의 직접적인 상호교섭으로 두 교과를 아예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글쓰기 과제가 제시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자는 통합교과의 쓰기 활동을 분석하면서 직접적인 상호교섭 구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까지는 가지 못하였으나 상호주의 관점이 매우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3. 연구 내용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과서²⁾에 나타난 쓰기 활동을 추출하여 국어과의 성취기준 및 국어교과서에 구현된 쓰기 활동 수준과 비교를 해 봄으로써 통합교과서의 쓰기 활동과 국어교과서의 쓰기 활동 학습 수준을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통합교과에서 연구자가 쓰기부분이라고 추출하는 기준은 통합교과서 내에 학생들이 글을 쓰도록 칸이 제시되어 있거나 통합교과서 내에서 쓰기 활동을 해야만 통합교과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통합교과서의 쓰기 활동으로 간주하여 추출하였다. 통합교과서는 모두 8권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권당 2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모두 16개의 소주제가 있다. 통합교과는 주제교과서로서 1학기에는 봄, 여름 교과서로 구성되었고, 2학기에는 가을, 겨울 교과서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국어과의 쓰기 활동 수준을 비교할 때는 학기별로 비교하였다. 1-1학기 국어과의 쓰기 활동 수준과 통합교과 1-1학기 봄, 여름 교과서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통합교과의 쓰기 활동 추출은 글을 쓰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였으나 국어과에서의 쓰기 활동 추출은 국어과 성취기준이 쓰기 영역일 때만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쓰기 활동의 비교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국어과의 쓰기 성취기준과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쓰기 활동 수준이다. 국어과의 쓰기 활동 수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으나 국어과에서 한글 지도 및 도구교과로서 지도하는 쓰기 활동을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통합교과서에 구현된 쓰기 활동이 국어과의 통합 및 연계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통합교과서에 실린 쓰기 활동들과 국어과의 연계를 밝힘으로써 통합적인 안목으로 과목을 바라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어과의 시각에서 통합교과서에 실린 글쓰기 양상을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방법적 차원을 편향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제기된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실행할지에 대한 논의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2) 통합교과서는 초등학교 1~2학년군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제교과서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통합교과의 변천과정 및 성격

가. 통합교과의 변천과정

1981년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통합교과’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2학년의 경우 교육과정 상에서 교과 편제를 그대로 두고 통합교과서를 개발하였다. 이 때 8개 교과의 교과서를 통합하여 ‘우리들은 1학년’, 도덕·국어·사회를 통합하여 ‘바른생활’, 산수·자연과를 통합하여 ‘슬기로운 생활’, 체육·음악·미술과를 통합하여 ‘즐거운 생활’ 교과서를 개발하였으나, 평가 등은 교과별로 실시하였다. 4차 교육과정은 세 통합교과 교과서의 개발을 통한 교과의 통합 지도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4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교과를 유지한 채 이를 통합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통합교과서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교과 통합이나 통합교육과정의 개념과 거리가 있었으며, 실제로 이를 현장에서 지도하는데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사이의 괴리와 같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었다(이종원·이경진,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과서가 등장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계의 일대 사건이었다. 통합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당시에 교육과정상에 분리되어 있던 8개의 교과서(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를 모아서 3권의 교과서(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실험적인 발상이었다(조상연, 2015).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와 산수과는 독립교과로 하고, 도덕·사회를 통합한 ‘바른 생활과’, 자연과를 중심으로 한 ‘슬기로운 생활과’, 체육·음악·미술을 통합한 ‘바른 생활과’를 편성하였다. 이는 교과의 통합적 지도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교과의 통합적 조직을 위한 첫 시도였다. 따라서 5차 교육과정은 교과 통합의 개념에 기초한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교과 교육과정이었다(이종원·이경진, 2017).

6차 교육과정에서는 합과적 통합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통합교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박채형, 2012). 합과적 통합의 관점의 성격이 현저하게 드러났던 5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6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통합교과의 성격을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슬기로운 생활과’의 경우 ‘주위의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사회 및 자연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궁리하는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통합 교과’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생활과’는 새로운 교과라기보다는 도덕과에 통합교과적 내용이 가미된 도덕과 중심의 통합 교과였으며, ‘슬기로운 생활과’는 사회과와 자연과의 내용을 일정한 기준 없이 주제를 중심으로 적절하게 안배한 합과적 형식이었으며, ‘즐거운 생활과’는 원천 교과인 체육·음악·미술의 수업 시수를 배분하여 배분된 수업 시간에 따라 각 교과의 활동을 선정·조직한 합과였다(이종원, 2015).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영역의 주제에서 다루어야 할 광범위한 범교과적 활동 내용을 제시하여 이전까지의 단순한 교과의 합과적 형태를 벗어났다(김경애, 2004).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의 통합 교과는 활동 주제 중심으로 범교과적 내용이 조직(통합)되어 하여 합과적 통합 유형을 극복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의의가 있다(이종원, 2015).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단원 혹은 차시에서의 분과 교과적 성격을 답습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흥미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접근을 강조(교육과학기술부, 2008)하여 주제 중심의 통합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즉, 제4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까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의 교과대로 교과서를 개발해오던 것을 학교, 봄, 가족, 여름, 이웃, 가을, 우리나라, 겨울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세 통합교과를 통합한 교과서를 개발한 것이다. 학생들의 삶에서 공간과 시간과 관련된 주제 각 4개의 대주제를 선정하고, 각 대주제에 4개의 소주제를 선정하여 세 개의 교과를 통합·조직하였다. 소주제에 포함될 활동 주제를 선정할 때 각 통합 교과의 성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조직하여 세 개의 통합 교과가 동일한 대주제, 소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게 하여 교육과정에 통합성과 각 교과의 차별성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주제의 통일은 주제별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이종원, 2015).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수업을 강화하여 대주제별 소주제 4개를 2개로 줄여 주제 학습에 몰입하고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교육과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 학습 시간이 2주에서 4주로 확대되면서 주제 중심 통합 학습의 호흡이 확대되었다. 또한 시간 중심 주제와 공간 중심 주제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대주제의 명칭을 변경하였다(교사용지도서, 2017).

4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통합교과와 내용과 조직 방식은 변화해 왔다. 4차 교육과정에서 6차 교육과정까지는 통합교과를 구성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였다면, 7차 교육과정부터는 ‘활동중심 주제에 의한 통합’을 표방하면서 통합 방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주제 중심의 탈학문적 접근을 했던 7차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도 원천 교과에서 유래한 내용을 세 통합교과에 배부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분과교과의 합과라는 문제점을 완전히 불식할 수는 없다(이종원, 2015).

나. 통합교과의 성격

교과의 성격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천되어 왔다. 오늘날 교과의 의미는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학습 가능한 형태로 조직해 놓은 것’ 이라고 정의한다면 통합교과도 당연히 하나의 ‘교과’로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이환기, 2015). 통합교과는 일상적으로 유치원의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분과교과를 연계해 주는 교과로서 생활사태와 교육사태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생활사태를 중심으로 보면 통합교과는 생활의 경험을 보완하는 역할, 즉 기능, 기술, 습관 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사태를 중심으로 보면 본격적인 분과교과 수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전조작기 후반에서 구체적 조작기 초반으로 입문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강충열, 2009 재인용). 즉 통합교과는 1~2학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부합되는 내용을 알맞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교과라 할 수 있다.

1) 통합교과 교육의 내용

초등학교 1~2학년 아동들에게 통합교육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비추어 적절한 접근이 되며, 그 접근은 교과의 경계를 지키며 교과 내용을 연결시키려는 교사 중심의 인위적인 간학문적 통합보다는 아동들이 현재적 삶 속에서 갖는 흥미와 요구에 기초하여 교과의 경계에 연연해하지 않고 경험하는 내용들에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발달적 관점에서 종합해 보면, 초등학교 1~2학년 아동들을 위한 통합교육은 유아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온전한 탈학문적인 주제 중심 접근이 주된 유형이 되어야 한다(강충열, 2009).

초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개인을 두고 보면 경험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며,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이 점에서 본다면, 통합교과는 생활과 분과 교과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부족한 경험을 보완하는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통합교과는 생활사태의 경험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자체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 과정이 곧 분과교과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통합교과는 해당 학령의 아동이 배워야 할 내용들로 구성되지만, 그것은 곧 3학년 이상에서 가르치는 교과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 과정은 교과교육에 대한 점진적인 적응의 과정, 구체적인 생활 사태와 추상적인 교육사태의 교량 역할을 하는 과정, 탈맥락성으로 인한 추상적인 교육사태의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완충지대, 본격적인 이론적 지식을 위한 준비기간, 생활의 성격을 띤 활동이나 놀이를 통하여 이론적 지식의 획득을 연습하는 과도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합교과의 이러한 성격은 교육적 통찰력이 부족한 교사에게는 항상 생활의 측면만이 파악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통합교과는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과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3학년 이상의 추상적인 교육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통합교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대상에 적용해 봄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분류·분화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통합교과의 효과 여부는 상당할 정도로 교사의 개인적 능력에 달려 있다(이환기, 2015).

2) 통합교과 교육의 방법

통합교과는 분과교과처럼 특별한 지식 체계의 위계를 따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익숙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출발점으로 하여 가르치는 방법을 따른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비록 지식의 분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세계를 다분히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언어적 상징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 편에서는 지적 발달이라는 한계(즉, 구체적 조작기)가 존재하고, 학문 편에서는 이 단계에 부합하는 지식의 형식(즉, 정서 수준의 지식의 형식)이 존재한다. 통합교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정당하게 존중하여 가르치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방법론에서는 구체적인 조작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소위 ‘언어 수준의 지식의 형식’을 가르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통합교과에서는 이 수준의 학생들에게 부합하는 정서 수준의 지식의 형식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통합교과에서는 사정이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통합교과에서는 가르쳐야 할 이론이 미리 상정되어 있지 않다. 통합교과는 대상에서 지식이 발생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통합교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 관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통합교과에서는 대상이 우선적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대상에 적용해 봄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분류·분화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이때까지 축적된 무분별한 경험, 다소간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던 경험이 이제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지식 체계의 각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러므로 통합교과교육은 성격상 탐구 학습이요, 발견학습의 지도 방법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이환기, 2015).

2. 쓰기 교수·학습의 이해³⁾

가. 쓰기교육의 성격과 중요성

흔히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정서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행위로 정

3) 쓰기 교수·학습의 이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신헌재외 10인이 공동 저술한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방법」(2005, 도서출판 박이정)에 발췌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의되고 있다. 우리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떠올리기도 하고 기존의 지식을 바꾸기도 하고 정교화하기도 하며 나름대로 정리하기도 한다. 이 행위가 바로 지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의미를 구성해 가는 행위이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쓰기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쓰기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글이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글쓰기는 말과 함께 의사소통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글쓰기는 독자와의 상호작용 행위이다. 즉, 글을 쓸 때 필자는 독자가 자기가 쓴 것을 나름대로 해석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점 때문에 필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독과의 관점이나, 지식, 배경 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셋째, 글쓰기는 사고 행위이다. 글쓰기를 통해 사고력이 길러지며, 반대로 사고력이 높은 사람이 좋은 글을 쓰게 된다. 글쓰기는 사고력을 계발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넷째, 글쓰기는 문자를 전제로 한 행위이다. 기본적으로 미술이나 음악에서는 나름대로의 기호 체계를 바탕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글쓰기는 문자를 매개로 한 행위이다.

글쓰기를 통해 논리적,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정서 등을 목적이나 독자,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은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이다. 또한 글쓰기는 사고력을 계발하는 주된 수단이 된다.

글쓰기는 학습의 주된 수단이 된다. 그 교과에서 생성된 지식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기록해 두는 수단으로서도 글쓰기를 활용하지만, 글쓰기 행위 자체가 그 교과의 지식을 만들어 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글쓰기는 모든 교과 학습의 기초가 된다.

다양한 글쓰기 활동은 듣기나 말하기, 읽기 능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어 시간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수업 시간이나 일상의 학교, 또는 일상생활에서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글쓰기 교육은 범교과적이고 범생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쓰기교육의 지도 내용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의 지도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쓰기 영역 지도 내용 체계

영역의 내용은 하위 범주별 ‘핵심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년(군)별 내용 요소’로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각 영역이 추구하는 통합적 ‘기능’을 신장하도록 하였다. 학년(군)별로 제시한 내용 요소는 해당 학년(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되, 학년(군) 간 연계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학년(군)에서도 융통성 있게 다룰 수 있다. 또한 활동의 총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 영역의 성취 기준을 같은 학년(군)의 다른 영역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다.

< 표 II-1 > 쓰기 영역 지도 내용 체계표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기능
		1~2학년	3~4학년	5~6학년	
쓰기의 본질	쓰기는 쓰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행위이다.			• 의미구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락 이해하기 • 독자 분석하기 • 아이디어 생산하기 • 글 구성하기 • 자료·매체 활용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 • 독자와 교류하기 • 점검·조정하기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전달 • 설득 • 친교·정서 표현 	의사소통의 목적, 매체 등에 따라 다양한 글 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쓰기의 초점과 방법이 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소재에 대한 글 • 겪은 일을 표현하는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을 표현하는 글 • 마음을 표현하는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하는 글(목적과 대상, 형식과 자료) • 주장하는 글(적절한 근거와 표현) • 체험에 대한 감상을 표현한 글 	
쓰기와 매체					
쓰기의 구성요소	필자는 다양한 쓰기 맥락에서 쓰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쓰기 • 문장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단쓰기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직 • 독자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주제를 고려한 내용과 매체 선정 	

쓰기의 과정 쓰기의 전략 • 과정별 전략 • 상위인지 전략	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쓰기의 태도 • 쓰기 흥미 • 쓰기 윤리 • 쓰기의 생활화	쓰기의 가치를 인식하고 쓰기 윤리를 지키며 즐겨 쓸 때 쓰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쓰기에 대한 흥미	•쓰기에 대한 자신감	•독자의 존중과 배려	

2)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초등학교 1~2학년]

취학 전의 국어 경험을 발전시켜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 문식성을 갖추고, 말과 글(또는 책)에 흥미를 가진다.

<쓰기>

초등학교 1~2학년 쓰기 영역 성취기준은 한글을 깨치고 학습자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학습 결과를 문자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쓰기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글자를 바르게 쓰고, 자신의 생각을 문장이나 짧은 글로 쓰면서 쓰기에 흥미를 갖고 부담 없이 쓰는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2국03-01] 글자를 바르게 쓴다.

[2국03-0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2국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2국03-0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2국03-05] 쓰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쓰는 태도를 지닌다.

다. 쓰기 지도의 원리

글쓰기 지도를 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글쓰기 지도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과정 중심의 글쓰기 지도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완성해 높은 글의 오류를 지적해 주거나 좋은 글을 모방하게 하는 식의 결과 중심의 방법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증진하기 어렵다. 일련의 글쓰기 과정을 크게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치기 등으로 나눌 때 각 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전략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 생성하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이나 생각 그물 만들기와 같은 전략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맹목적으로 연습을 하게 한다고 해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하게 연습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연습만 시켜서는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글쓰기 수업을 하는 것은 좀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글을 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선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적용한 연습을 많이 해 보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글쓰기에 필요한 지식이나 내용 지식을 가르쳐주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전략(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범교과적인 글쓰기 지도(writing across the curriculum)를 강조해야 한다. 글쓰기 수업 시간에만 글쓰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도를 한다면 시간도 부족하고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른 교과에서도 그 교과의 특성에 비추어서 '부분적으로' 글쓰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 시간에 개구리 한 살이에 대한 글을 쓰게 할 때, 이 경우 개구리 한 살이에 대한 공부를 위한 수단으로 글쓰기 활동을 한 것이지만, 이때에도 부분적으로 과학적인 내용의 설명문 쓰기를 지도해야 한다. 한편으로 글쓰기 수업 시간에도 다른 교과 학습에서 필요한 글쓰기 유형을 인식하고 그 교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글쓰기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 과정 중심 쓰기 지도의 개념과 의의

글쓰기 지도 방법을 나누는 방식 중의 하나는 결과 중심의 방법과 과정 중심의 방법이다. 결과 중심접근법(product-oriented approach)은 결과 자체를 강조하여 모범적인 글을 제시하고 다 쓴 글에 대해 논평해 주는 방식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비해 과정 중심 접근법(process-oriented approach)은 일련의 글쓰기 과정, 다시 말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 표현, 고치는 각각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전략을 직접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방식이다.

과정 중심 접근은 쓰기의 본질적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과정 중심 접근이 지닌 교육적 의미이다.

첫째, 과정 중심 접근을 취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둘째, 과정 중심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증진해 줄 수 있다. 결과 중심 접근에서는 과제를 제시하고, 완성된 글에 대해 논평해 주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글을 증진시키기 어렵다.

셋째, 과정 중심 접근을 취하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 교사들은 개인별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이나, 다른 친구들과 협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학생들 각자가 어떤 면에 장점을 보이고, 어떤 면에 단점을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 각자에게 맞는 내용과 방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과정을 강조하는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과정 중심의 접근에서는 매시간 한 편의 완벽한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

마. 기초 문식성 지도 유의점

기초 문식성 지도는 한글 해득을 중심으로 한글을 사용해 이해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지도하는 것이다. 기초 문식성 지도에 필요한 몇 가지 유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에게 익숙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한다. 현재 우리 교육에서 한글 해

득은 절충식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를 중심으로 한글을 읽고 쓰는 활동이 먼저 이루어진다. 한글 해득을 지도할 때 사용하는 어휘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말하고 듣는 어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사용하는 말의 발음과 글자의 모양을 연결하고 글자의 짜임을 인식할 때 한글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많이 쓰는 어휘들을 제시해 읽고 쓰면서 발음, 글자, 의미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발음 중심 방법과 의미 중심 방법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한다. 한글지도는 한글을 익히고 한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구두 언어를 기반으로 한 문자 언어 사용을 강조한다. 입문기 학생은 구두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다만, 문자 언어의 사용이 능숙하지 못하다. 문자 사용을 지도할 때에는 구두 언어를 활용하거나 구두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학생의 구두 언어를 활용해 문자 언어를 익히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정확한 언어 규칙이나 어휘 사용보다는 문자 사용에 관심을 유도한다. 학습 활동의 중점을 한글 해득에 두되, 이해와 표현 활동이 중심일 때에는 정확한 언어 규칙보다는 원활한 이해와 표현을 강조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유의한 언어 자료를 활용해 접근한다. 한글 해득이나 이해와 표현 활동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활동 상황 등 활동 자료들은 학생의 생활과 관련 있어야 한다. 문자 언어에 익숙하지 않는 학생들이 한글을 익히고 이해와 표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활동 교수 자료가 학생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것이어야 한다. 학생에게 익숙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도 한글을 해득한 바탕 위에서 문자를 사용해 이해와 표현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담화의 관습적인 부분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글자나 낱말을 읽고 쓸 때에도, 문장을 읽고 쓸 때에도, 한 편의 글을 쓸 때에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이 있다. 문식성의 활동은 담화의 관습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차츰 담화의 관습을 습득하고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초 문식성 지도에서 여러 가지 담화의 관습을 학생이 접할 수 있게 하여 학습 활동 과정에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과 문식성과 기능교과로서 국어교과와 타 교과 간 통합⁴⁾

교과 문식성은 학습을 위해 문자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 지식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학습 능력, 그리고 각 '교과'의 담화공동체 안에서 의사소통하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교과 문식성을 교과의 지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이 교과를 배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임과 동시에 교과를 통해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교과 문식성을 기르기 위해 언어 기능을 타 교과에 전이시키고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는 수행되어 왔다. 예컨대, 쓰기 영역에서는 범교과적 쓰기(writing across the curriculum)가 해당되며, 읽기 영역에서는 교과 독서가 있다.

언어 기능은 곧 지식의 이해(듣기, 읽기)와 표현(말하기, 쓰기)에 해당한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어기능 신장이 곧 학습능력의 신장과 교과 문식성의 신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언어 기능을 교과 학습을 더 잘하기 위한 방편으로만(보조수단)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기능이 교과를 학습하는 데 좀 더 깊숙이 내재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교육의 장(場)이 필요하다.

교과문식성은 내용과 기능이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융합되어 총체를 이룬다. 따라서 기능교과와 내용교과를 분리하여 지도하는 것은 교과문식성 신장의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가. 활동 차원의 통합

활동차원의 통합은 두 가지 이상의 교과가 통합될 때, 특정한 하나의 교과가 중심이 되는 형태의 통합 유형이다. '중심' 교과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이 이루어질 때, 다른 교과들은 활동 차원으로 결합되어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교과 통합의 방식이다. 활동 차원의 통합교육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

4) 교과문식성과 기능교과로서 국어교과와 타 교과간 통합 이론적 논의는 이경화·육인경(2016)의 연구를 종합 정리하였다. 「국어 교과와 타 교과 간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초등교과교육연구』 제25집,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 국어 교과 목표 + 타 교과 활동 통합

이는 기능 교과로서 국어 교과가 중심이 되고 타 교과가 활동 차원으로 통합되는 경우이다. 즉 교과가 중심이 된다는 의미는 해당 교과가 추구하는 교육과정 상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타 교과를 활동 수준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2) 타 교과 목표 + 국어과 활동 통합

이는 내용 교과가 중심이 되고 기능 교과로서 국어 교과가 활동차원으로 통합되는 경우이다. 즉 내용교과인 타 교과 중심 통합을 말한다. 이 경우는 내용교과 학습을 위하여 국어과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가) 타 교과 목표 + 읽기 활동 통합

타 교과 학습을 위해 이전에 국어 교과에서 학습했던 읽기 기능을 활동 차원에서 통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사회 학습을 위해 국어 교과에서 학습한 ‘광고 비판적으로 읽기’기능을 통합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나) 타 교과 목표 + 쓰기 활동 통합

타 교과 학습을 위해 이전에 국어 교과에서 학습했던 쓰기 기능을 활동 차원에서 통합하는 경우이다. 이를 ‘범교과적 쓰기(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또는 ‘교과 작문’이라고 한다. 이 유형은 타 교과 목표와 활동 차원의 국어 교과 통합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나. 목표 차원의 통합

목표 차원의 통합은 두 가지 이상의 교과가 통합될 때 해당 교과들의 교육과정의 지식, 기능, 태도 성취기준이 학습 목표의 차원에서 통합되는 교과 통합 방식이다. 예컨대, 하나의 수업 목표가 특정 교과의 학습 내용에 치우쳐 있지 않고, 해당 학습목표를 달성하면 학습자가 국어 교과의 내용 요소와 내용교과의 내용 요소를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면 ‘목표 차원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 차원의 통합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국어 교과 목표 + 타 교과 목표 통합

이는 국어교과와 내용교과로서 타 교과가 학습 목표 차원에서 통합되는 방식이다. 가령, 환경 신문 만들기 주제 학습을 위해 국어 교과, 과학 교과, 도덕 교과의 학습 요소가 학습 목표 차원에서 통합되는 경우에 목표 차원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2) 타 교과 목표 간 통합(국어 교과 목표 제외)

이는 국어 교과가 포함되지 않고 내용교과와 내용교과가 학습 목표 차원에서 통합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국어 교과와 타 교과 간의 통합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 소개한다. 예를 들어 ‘가족의 사랑’이라는 주제 학습을 위해 도덕 교과와 사회교과의 학습 요소들이 학습 목표 차원에서 통합되었을 때 목표 간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제재 차원의 통합

제재 차원의 통합은 두 가지 이상의 교과가 통합될 때, 국어과의 제재(비문학 제재, 문학 제재)가 통합의 요소가 되는 형태의 통합 유형이다.

1) 아동문학 중심 통합

아동문학은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에서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크다. 또한 문학작품은 실제의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언어자료가 될 수 있다.

2) 교과 연계 독서

이는 교과 학습에서 내용교과와 제재 글 읽기를 연계하는 통합 유형이다. 독서는 내용교과의 정보를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지식을 재구성하고 확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1~2학년 통합교과 주제 교과서인 1학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교과서와 2학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교과서를 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통합교과서의 내용 및 지도방법을 살펴보기 위하여 1학년, 2학년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교과지도서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2015 국어과 교육과정과 1-1학기, 1-2학기, 2-1학기, 2-2학기 국어 교과서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교과서에 실린 내용 중에서 쓰기 활동이 포함된 관련 항목은 모두 추출하였다. 즉, 교과서에 쓰기 활동을 하기 위하여 빈칸을 제공했거나 혹은 통합교과의 학습을 위하여 반드시 쓰는 활동이 병행되는 활동도 쓰기 활동으로 간주하여 모두 추출하였다. 예를 들면 역할놀이를 하기 위해 대본을 만드는 활동이 제시되었다면 통합교과서에 쓰는 칸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역할극을 위해 대본을 수정하거나 쓰는 활동인 경우는 모두 쓰기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학습을 위한 쓰기 활동은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을 심화시키는 도구로 굉장히 유용하다.

통합교과에도 쓰기 활동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국어과의 관점에서는 국어과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에 맞지 않거나 글쓰기의 전략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인 글쓰기 지도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쓰기 부담만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내용의 중복으로 인하여 수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면이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국어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그 적절성을 따져보고자 한다.

2. 분석기준

가. 분석의 층위

2015 통합교과에서 다루어지는 쓰기 활동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층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합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활동은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 연구자는 2가지로 분석의 층위를 나누었다.

A단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한 쓰기 활동 분석

A단계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수준에서 1~2학년의 국어과의 성취기준과 통합교과의 성취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쓰기 활동에 대한 성취기준의 분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A단계에서 상호보완적 통합이 된다면 교육과정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도 통합되어 개발되고, 교수·학습도 통합적으로 지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채택되지 않았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영역과 통합교과 영역은 고유한 내용을 가지고 독립된 교과로 영역이 자리 잡혀 있다.

다만 분석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2015 통합교과 지도서⁵⁾에서 제시하는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을 살펴보는 것이다. 2015 통합교과 지도서에는 주제별 교과서의 의의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주제별 교과서에서는 학교 수업의 중심점을 교과보다 학생에게 두고, 교과 내용의 일관성보다 학생의 학습 일관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학교 수업은 교과를 중심으로 종적인 계열을 따르는 일관성을 중시해 왔다. 그러나 학생은 모든 교과 수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시간표에 의해 교과를 분절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분절된 학생의 경험은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단위로 학습 일관성을 회복해 주어야 한다. 이에 주제별 교과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주어진 세 개의 교과를 횡

5) 정식명칭은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다. 세 교과를 통합하여 주제별 교과서를 만들었고 일반적으로 통합교과라 칭한다. 2015교육과정 1-2학년군 통합교과의 주제별 교과서는 총4권(봄, 여름, 가을, 겨울)으로 대주제를 그대로 교과서 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적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주제를 한 달 동안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동시에 국어와 수학에서 배운 교과 내용과 기능들을 주제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도 기능적으로 연계·통합할 수 있다.⁶⁾(p.11)

이에 따라 통합교과 지도서는 각 16개의 소주제별로 연계된 국어과의 성취기준을 밝히고 있다. 4장에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B단계. 교과서 지도서에 나타난 쓰기 활동 중심 분석

B단계는 통합교과서 및 지도서에 나타난 쓰기 활동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통합교과서 및 지도서의 쓰기 활동의 분석기준은 국어과의 쓰기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어과 교과서 및 지도서이다. 이는 국어과의 시각에서 통합교과서에 실린 글쓰기 양상을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방법적 차원을 편향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통합교과 지도서에도 국어과의 연계·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듯이 현재 국어과에서 지도하는 내용과 방법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B단계에서 쓰기 활동을 분석하다가 단순 쓰기 활동 이외의 국어과의 쓰기 방법이나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교사에게 국어과와 통합교과의 내용을 통합 혹은 연계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교사는 교육과정, 교과서 등이 비록 통합되어 있지 않더라도 각자의 교육 상황에 맞게 교육 내용과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통합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과의 쓰기 방법이나 절차가 필요한 부분에서의 지도는 교사의 개인적 경험에 의하여 학생 쓰기 내용이 달라지는 단계이다. 교사의 저학년 지도 경험이나 학급상황에 맞추어 교사 스스로 쓰기 지도 충위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사에게 통합되어 있지 않은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학습단원을 재구성해야 하는 추가의 부담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재구성 과정에서 교육 내용과 학습 과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어과의 방법적 전략이 필요한 부분을 교사의 개인적 경험에 의한 쓰기 활동으로 통합교과에서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6) 밑줄은 연구자가 친 것임.

3. 분석의 방법

통합교과의 쓰기 활동들을 분석하면서 분석의 기준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통합교과 분석 층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단계인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한 통합교과 쓰기 활동 분석에서는 통합교과 지도서가 제시하고 있는, 연계된 국어과의 성취기준을 모두 정리하였다. 본 연구자가 추출하고 있는 쓰기 활동은 통합교과에서 제시된 성취기준이 문학영역이어도 쓰기 활동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성취기준을 쓰기영역에만 한정하지는 않았다. 통합교과에서 제시하는 국어과 영역 또한 국어과의 전 영역을 제시하였고 저학년의 특성상 글씨 쓰기부터 간단한 문장쓰기까지 쓰기 활동 자체가 전 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국어과 성취기준 전 영역을 포함하였다.

B단계인 통합교과서 및 지도서에 나타난 쓰기 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과서에 학생들이 글(글자 포함)을 쓰도록 빈칸이 제시된 활동들은 모두 쓰기 활동으로 간주하여 추출하였다. 또한 대본쓰기처럼 글쓰기 칸이 제시되지 않는지만 글을 써야만 학습활동이나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 차시도 모두 쓰기 활동으로 간주하여 추출하였다. 지도서와 교과서의 내용은 교과서를 중심에 놓고 지도서에 기술된 형태를 참고하면서 지도서와 교과서의 내용을 같이 묶어서 분석하였다.

B단계에서 특히 국어과의 교수학습 방법의 관점에서 쓰기 활동에 대한 절차적 지도 방법이 필요하거나 국어과의 학습내용과 비교하여 위계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쓰기활동 부분을 따로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교과는 주제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로 학습 효과 여부는 상당할 정도로 교사의 개인적 능력에 달려 있다(김환기, 2015)라고 밝히고 있지만 개별교과로서 국어과적인 관점에서 국어과의 연계지도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교사의 재구성 과정에서 교육 내용과 학습 과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강조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IV. 통합 교과 의 쓰기 활동 분석

1.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한 쓰기 활동 분석

가. 국어과 쓰기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과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학생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 차원에서 한글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우리말과 글자에 대한 누리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 1~2학년 국어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글 교육 시간이 27차시(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62차시 내외(2015 개정 교육과정)로 확대됨으로써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에서의 기초·기본 교육을 강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15).

특히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쓰기 영역 성취기준은 한글을 깨치고 학습자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학습 결과를 문자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쓰기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으며 글자를 바르게 쓰고, 자신의 생각을 문장이나 짧은 글로 쓰면서 쓰기에 흥미를 갖고 부담 없이 쓰는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15). 따라서 초등학교 1~2학년에서의 쓰기 활동은 쉽고 반복적이며 학생들이 학습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학습수준이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국어과의 쓰기 교육과정에 맞추어 구성된 국어과 쓰기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어과 쓰기 성취기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쓰기영역에서 모두 5개의 성취기준을 마련하였다.

[2국03-01] 글자를 바르게 쓴다.

[2국03-0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2국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2국03-0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2국03-05] 쓰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쓰는 태도를 지닌다.

학습 요소로는 글자 정확하게 쓰기, 글씨 바르게 쓰기, 완성된 문장 쓰기, 짧은 글 쓰기,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쓰기, 쓰기에 흥미 갖기로 설정되었으며,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은 설정의 취지나 학습요소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시되고 있다. 해설의 제시 여부가 학습 내용의 경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교육부, 2015)고 밝히고 있으며 국어과 1~2학년 쓰기영역에서 모두 5개의 성취기준 중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3개의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이 있다.

2) 성취기준 해설

[2국03-01] 이 성취기준은 바른 자세로 글자를 정확하게 쓰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바른 자세로 글씨 쓰기에는 바르게 앉아 쓰기, 연필 바르게 잡기, 날자의 모양이나 간격 등을 고려하여 글씨 바르게 쓰기가 포함된다. 글자를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짜임과 필순에 맞게 날자를 쓰게 한다. 글자의 복잡성 정도를 고려하여 처음에는 받침이 없는 간단한 글자부터 시작하여 점차 받침이 있는 복잡한 글자를 쓸 수 있게 한다.

[2국03-02] 이 성취기준은 문장 구성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한두 문장으로 짤막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⁷⁾하되,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또한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7) 밑줄은 연구자가 친 것임.

[2국03-03] 이 성취기준은 자신의 주변에서 소재를 찾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특징이 드러나도록 짧은 글로 나타내 보게 한다.

성취기준의 해설을 살펴보면 받침이 없는 글자에서 시작해서 점차 받침이 있는 글자 쓰기로 나아가고 한두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쓰는 활동으로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3)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가) 가장 기본적인 글자, 낱말, 문장을 바르고 정확하게 쓰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되, 학습자가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것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한다.
- 나) 글자 바르게 쓰기를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수준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낱말과 문장을 제시하여 글씨 쓰기를 연습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수준을 넘는 낱말이나 문장을 제시하면 쓰기를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낱말이나 문장을 제시하여 쓰기에 흥미를 갖도록 지도한다. 특히 읽기 능력에 비해 쓰기 능력의 발달이 늦다는 점을 고려한다.
- 다) 받아쓰기는 글자를 정확하게 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학습자가 부담을 갖게 되면 국어 활동에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활용한다. 너무 어려운 글자를 받아쓰게 하여 국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요소 중심으로(예 : 된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나는 낱말) 지도한다.
- 라) 기초 한글 학습이 부족한 학습자를 위해서는 문자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놀이 중심,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한다.
- 마)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짧은 글 쓰기를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생활하면서 어떤 사물을 접하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한 다음, 서너 문장의 짧은 글로 표현하도록 한다.
- 바)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을 쓸 때에는 한 편의 글이 갖추어야 하는 형식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 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쓰기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최대한 활동 중심, 놀이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한다.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1~2학년의 쓰기 수준을 종합해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는 한두 문장으로 표현하고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는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짧은 글 쓰기를 지도할 때에는 서너 문장의 짧은 글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쓰기가 학생들의 부담이 되거나 자칫 흥미를 잃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최대한 놀이중심, 활동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1~2학년 국어과 교과서에도 이런 의도가 반영이 되어 쓰기 성취기준은 실제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군별 자기 표현적 글쓰기 수준의 지표를 연구한 김민경(2014)에 의하면 1~2학년의 글쓰기 수준을 분석한 결과 내용면에서 ‘중’수준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각 경험을 1~2문장으로 쓰는 수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상’수준은 자신의 경험을 주제로 할 경우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이 두 문장 이상 나타나고,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나열하듯 쓰지만, 있었던 일 하나의 소주제에 대해 2~3문장의 구체적인 사실로 더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어과의 성취기준에서는 한두 문장을 써 보도록 하고 있으나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에서는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짧은 글 쓰기를 지도할 때에는 서너 문장의 짧은 글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수준은 김민경의 연구에 의하면 ‘상’에 해당된다. 본 연구자의 경험으로도 1~2학년의 보통의 학생들은 한두 문장으로 기술하는 활동을 부담 없이 느끼고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지도하는 교사와 학생 모두 글쓰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글쓰기 지도 전략이 필요한 글쓰기 활동이 된다. 이럴 경우 학생들의 쓰기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통합교과에서 글쓰기 활동 지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통합교과에서 3~4문장을 쓰도록 하는 것은 그 수업이 통합교과의 주제 학습보다 글쓰기 자체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어과의 글쓰기 전략이 필요한 학습내용으로 이어지며 국어과와 연계한 세밀한 학습내용 구성이 요구된다.

나. 통합교과 교육과정

2015 개정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통합되어 교과서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주제 교과서로 구성되었으나, 3개의 교과마다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교육과정에 따로 기술되어 있다(교육부, 2015). 또한 통합교과의 주제 및 학습요소와 연계되는 국어과 성취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통합교과서에는 학습내용의 정리 및 보조 활동으로 쓰기 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국어가 도구교과인 점을 생각한다면 모든 교과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통합교과에서 나타나는 쓰기 양상이 국어과 1~2학년에서 다루는 쓰기 양상 및 수준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국어과에서 추구하는 쓰기교육을 더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어과 1~2학년에서의 성취기준과 통합교과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봄(1-1)

가) 학교에 가면(단원명)

◆ 성취기준

[2바01-01]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서 지킨다.

[2슬01-01] 학교 안과 밖, 교실을 둘러보면서 위치와 학교생활 모습 등을 알아본다.

[2슬01-02]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2즐01-01]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즐01-02] 다양한 방법으로 교실을 꾸민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듣기·말하기>

[2국 01-01]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2국 01-06] 바로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나) 도란도란 봄동산(단원명)

◆ 성취기준

[2바02-02]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핀다.

[2슬02-03] 봄이 되어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찾아본다.

[2슬02-04] 봄에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 기르면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한다.

[2즐02-03]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즐02-04] 여러 가지 놀이나 게임을 하면서 봄나들이를 즐긴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문학>

[2국 05-01] 느낌과 분위기를 살려 그림책, 시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듣는다.

[2국 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2) 여름(1-1)

가) 우리는 가족입니다.(단원명)

◆ 성취기준

[2바03-01] 가족 및 친척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실천한다.

[2슬03-01] 우리 가족의 특징을 조사하여 소개한다.

[2슬03-02] 나와 가족, 친척의 관계를 알고 친척과 함께 하는 행사나 활동을 소개한다.

[2즐03-01]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고마운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2즐03-02] 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한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듣기·말하기>

[2국 01-04] 듣는 이를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한다.

[2국 01-05] 말하는 이와 말의 내용에 집중하며 듣는다.

나) 여름 나라(단원명)

◆ 성취기준

- [2바04-01] 여름철의 에너지 절약 수칙을 알고 습관화한다.
- [2슬04-01] 여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 [2슬04-02]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도구의 종류와 쓰임을 조사한다.
- [2즐04-01] 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2즐04-02] 여름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문학>

- [2국 05-04]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일을 시나 노래, 이야기 등으로 표현한다.

3) 가을(1-2)

가) 내 이웃 이야기(단원명)

◆ 성취기준

- [2바05-01] 공공장소의 올바른 이용과 시설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른다.
- [2슬05-01]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 [2슬05-02]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와 시설물의 종류와 쓰임을 탐색한다.
- [2즐05-01] 이웃의 모습과 생활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
- [2즐05-02] 주변의 장소와 시설물을 이용하여 놀이를 한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듣기·말하기>

- [2국 01-01]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 [2국 01-06]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나) 현규의 추석(단원명)

◆ 성취기준

- [2바06-02] 추수하는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른다.
- [2슬06-02]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가을의 특징을 파악한다.
- [2슬06-03] 추석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세시 풍속과 비교한다.
- [2즐06-02] 가을과 관련한 놀이를 한다.
- [2즐06-03]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한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문학>

- [2국 05-01] 느낌과 분위기를 살려 그림책, 시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듣는다.
- [2국 05-05] 시나 노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다.

4) 겨울(1-2)

가) 여기는 우리나라(단원명)

◆ 성취기준

- [2바07-01] 우리와 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 의지를 다진다.
- [2슬07-01]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자료를 만든다.
- [2슬07-02]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 [2즐07-01] 우리나라의 상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 [2즐07-02] 남북한에서 하는 놀이를 하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듣기·말하기>

- [2국 01-04] 듣는 이를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한다.

나) 우리의 겨울(단원명)

◆ 성취기준

- [2바08-01] 상대방을 배려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을 한다.
- [2슬08-01] 겨울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슬08-02] 겨울철에 쓰이는 생활 도구의 종류와 쓰임을 조사한다.

[2즐08-01] 겨울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즐08-02] 여러 가지 놀이 도구를 만들어 겨울 놀이를 한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듣기·말하기>

[2국 01-06]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5) 봄(2-1)

가) 알쏭달쏭 나(단원명)

◆ 성취기준

[2바01-02]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2슬01-03] 나의 몸을 살펴보고 몸의 여러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관련짓는다.

[2슬01-04]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서 재능과 흥미를 찾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의 모습을 예상한다.

[2즐01-03] 나의 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한다.

[2즐01-04] 나의 흥미와 재능 등을 표현하는 공연·전시 활동을 한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듣기·말하기>

[2국 01-03]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

나) 봄이 오면(단원명)

◆ 성취기준

[2바02-01] 봄철 날씨 변화를 알고 건강 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

[2슬02-01] 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슬02-02] 봄철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종류와 쓰임에 따라 구분한다.

[2즐02-01] 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2즐02-02] 봄을 맞이하여 집을 아름답게 꾸민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문학>

[2국 05-04]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일을 시나 노래, 이야기 등으로 표현한다.

6) 여름(2-1)

가) 이런 집 저런 집(단원명)

◆ 성취기준

[2바03-02] 가족의 형태와 문화가 다양함을 알고 존중한다.

[2슬03-03]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가족을 살펴본다.

[2슬03-04] 가족의 형태에 따른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을 알아본다.

[2즐03-03] 집 안팎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2즐03-04]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놀이를 한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쓰기>

[2국 03-0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2국 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2국 03-0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나) 초록이의 여름 여행(단원명)

◆ 성취기준

[2바04-02] 여름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2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탐구한다.

[2슬04-04] 여름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계획한다.

[2즐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감상한다.

[2즐04-04] 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듣기·말하기>

- [2국 01-01]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 [2국 01-03]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
- [2국 01-05] 말하는 이와 말의 내용에 집중하여 듣는다.

7) 가을(2-2)

가) 동네 한 바퀴(단원명)

◆ 성취기준

- [2바05-02]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면서 일의 소중함을 안다.
- [2슬05-03] 동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 설명한다.
- [2슬05-04]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 [2즐05-03] 동네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2즐05-04]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놀이를 한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쓰기>

- [2국 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 [2국 03-0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나) 가을아 어디 있니(단원명)

◆ 성취기준

- [2바06-01]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생활한다.
- [2슬06-01] 가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모습을 관련짓는다.
- [2슬06-04]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특징에 따라 무리 짓는다.
- [2즐06-01] 가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2즐06-04] 가을 낙엽, 열매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문학>

[2국 05-04]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일을 시나 노래, 이야기 등으로 표현한다.

8) 겨울(2-2)

가) 두근두근 세계 여행(단원명)

◆ 성취기준

[2바05-02]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2슬05-03] 내가 알고 싶은 나라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2슬05-04]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조사한다.

[2즐05-03] 다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는 작품을 전시·공연하고 감상한다.

[2즐05-04]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를 즐기고 그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듣기·말하기>

[2국 01-01]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나) 겨울 탐정대의 친구 찾기(단원명)

◆ 성취기준

[2바08-02] 생명을 존중하며 동식물을 보호한다.

[2바08-03] 겨울방학 생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

[2슬08-03] 동식물의 겨울나기 모습을 살펴보고, 좋아하는 동물의 특성을 탐구한다.

[2슬08-04] 겨울에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등을 조사한다.

[2즐08-03] 동물 흉내 내기 놀이를 한다.

[2즐08-04]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 연계된 국어과 성취기준

<읽기>

[2국 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표 IV-1 > 국어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통합교과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1학년	2학년
듣기·말하기	[2국01-01]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2)	○(2)
	[2국01-02] 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
	[2국01-03]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		●○(2)
	[2국01-04] 듣는 이를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한다.	●○(2)	●
	[2국01-05] 말하는 이와 말의 내용에 집중하며 듣는다.	●○(1)	○(1)
	[2국01-06]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3)	●
읽기	[2국02-01] 글자, 낱말,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	●	
	[2국02-02] 문장과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	●
	[2국02-03]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	●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1)
	[2국02-05]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	●
쓰기	[2국03-01] 글자를 바르게 쓴다.	●	
	[2국03-0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	●○(1)
	[2국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2)
	[2국03-0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	●○(2)
	[2국03-05] 쓰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쓰는 태도를 지닌다.	●	●
문법	[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	
	[2국04-0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읽고 쓴다.		●
	[2국04-03] 문장에 따라 알맞은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	●	●
	[2국04-04] 글자, 낱말, 문장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흥미를 가진다.	●	●
문학	[2국05-01] 느낌과 분위기를 살려 그림책, 시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듣는다.	●○(2)	
	[2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1)	●
	[2국05-03]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	●
	[2국05-04]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일을 시나 노래, 이야기 등으로 표현한다.	●○(1)	●○(2)
	[2국05-05] 시나 노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다.	●○(1)	●

주. 국어 교육과정의 학년(군) 설정의 취지를 살려 성취 기준을 중점 성취 기준과 지속 성취 기준으로 분류했다. 중점 성취 기준은 해당 학년에서만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성취 기준이고, 지속 성취 기준은 두 개 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성취 기준이다. 성취기준표에서 **굵은 글씨체**로 제시된 것은 **통합교과**에서 연계되었다고 제시된 국어과 성취기준임. ●는 국어과 성취기준표에 제시된 것이고 ○표시는 통합교과에 나타나는 학년에 연구자가 표시한 내용임. (숫자)는 통합교과에 나타나는 빈도수를 표시함.

통합교과에서 가장 많이 연계된 영역은 듣기·말하기로 13번 제시되었고 문학은 7번, 쓰기 5번, 읽기 1번, 문법은 연계된 성취기준이 없었다. 국어과의 쓰기 성취기준이 통합교과에 등장하는 시기는 2-1학기 여름과 2-2학기 가을교과서를 배울 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절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겠지만 1학년 때는 주로 단어 수준의 난도가 문제였다면 2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문장을 구성하는 쓰기 활동의 양이 많아지면서 학습량 또한 급격히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합교과에서는 문법과 연계된 성취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국어과의 문법 성취기준과 연계가 명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었다. 통합교과 1학년 가을 교과서에는 주변의 소리를 들리는 대로 써보는 활동이 있고, 2학년 가을 교과서에도 매미소리를 흉내 낸 말을 써보도록 하는 쓰기 활동이 있다. 이 부분은 국어과 문법의 성취기준인 [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와 연계되어 있다. 들리는 대로 써보는 활동을 통해 자음과 모음의 소리 값을 병행하여 학습한다면 국어과에서 강조하는 한글교육과 연계된 학습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국어과와 통합교과의 학습목표 도달이 쉬웠을 것이다. 통합교과에서는 연계된 성취기준만을 기술했을 뿐 국어과의 내용을 어떻게 연계하거나 지도할 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 그냥 단순히 문서상의 연계로만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성취기준만을 보고 교사가 수업을 재구성 하는 과정에서 교육 내용과 학습 과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통합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통합교과에서 매 단원 성취기준을 제시하면서 연계된 국어과의 성취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은 국어과에서 논의되는 범교과 학습을 실행하려는 통합교과의 의지가 엿보이나 아직은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위계설정은 부족한 편이다.

2. 통합교과서 및 지도서에 나타난 쓰기 활동 분석

국어과의 쓰기 활동 수준과 통합교과에 나타난 쓰기 활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국어과의 단원별 목표 체계(쓰기 영역만 추출)와 통합교과의 쓰기 활동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1-1학기 국어과와 통합교과 비교

1) 1-1학기 국어과의 쓰기 활동 분석

< 표 IV-2 > 1-1학기 국어과 쓰기 성취기준 분석

학기	단원 성취기준	단원목표	쓰기 내용 분석	횟수
1-1	쓰기(1) 글자를 바르게 쓴다.	▶바른 자세로 낱말을 쓸 수 있다 ▶자음자를 안다 ▶모음자를 안다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	자음자, 모음자를 익히고,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고 따라 써보는 활동으로 구성	5
	쓰기(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다.	이 시기는 직접 문장을 만들지는 않고 문장에 어울리는 단어를 넣는 활동, 보기의 낱말들을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구성됨.	1
	쓰기(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겪은 일을 떠올려 그림일기를 쓸 수 있다. (지도시기:7월중순)	그림일기를 쓰는 방법을 소개하고 교과서에 최대 3개의 문장으로 일기쓰기 예시자료를 보여줌.	1
1-1학기 9개의 단원 중 2개의 단원에서는 쓰기 성취기준이 없음.				

1-1학기 국어과에서는 쓰기 5개의 성취기준 중 3개의 성취기준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음자와 모음자 및 글자의 짜임에 대한 학습, 낱말쓰기, 문장에 단어 넣기, 1학기 마지막 단원에 직접 문장을 구성하여 문장을 써보는 활동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1학기 마지막 단원(7월중순)에 와서야 비로서 자기 스스로 완전한 문장을 써 보는 활동으로 단계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과서 예시자료에는 3~4개의 문장으로 글을 써 보는 활동(1-1학기 말)이 제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에게 실제 3~4개의 문장을 쓰는 활동은 아직은 버거운 단계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김민경(2014, p. 109)에 의하면 1~2학년군의 중 수준은 자신의 경험을 1~2문장으로 쓰고 있으며, 상 수준은 2~3개의 문장을 쓰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어과 1-1(가) 교과서에는 실제로 단어쓰기 활동이 전혀 없다. 단지 생활단어⁸⁾ 글자를 따라 써보거나, 자음자와 모음자를 익히는 과정으로 완성된 글자가 아닌 자음자와 모음자를 써보는 활동으로 교과서가 편찬되어 있으며 1-1(나)에 와서는 교과서에 단어들을 제시하고 이 단어들을 연결하여 문장을 써보는 활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문장을 만드는 학습을 할 때 보통 세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중에서 한 부분(낱말)을 쓰도록 구안되어 있다. 1-1학기 국어과 학습은 문장 1개를 만들어 보기 위해 단어의 조합을 생각해 보고 그림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는 쓰기의 활동이 중심이기보다는 그림을 다양한 문장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익히도록 하는 것에 더 주안점이 있었다. 1-1(가),(나) 교과서를 통틀어 쓰기의 강조보다 자연스런 읽기에 더 주안점을 두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통합교과 1-1 <봄> 쓰기 활동 분석

< 표 IV-3 > 1-1 봄 쓰기 활동 분석

학기	연번	교과서	내용	쓰기 내용 분석
1-1	1	봄	관찰기록장 기록하기-그림그리기 혹은 글자쓰기	그림을 그림, 교과서 예시자료는 그림과 한문장으로 구성

8) 본 연구자가 명명한 것으로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어를 의미함. 모자, 바지, 바구니, 지우개, 선생님, 친구, 거미, 나무, 나비, 구두, 참새 등

	2		봄책자 만들기-사진설명하기	사진설명-단어쓰기
--	---	--	----------------	-----------

봄 교과서에는 글쓰기 활동이 2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초 한글지도가 강화되면서 통합교과서도 쓰기 활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쓰기 활동의 횟수는 2번뿐이나 글쓰기 수준은 국어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봄 책자 만들기에는 동물/식물/놀이 등 봄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진을 오려 붙여서 이름을 써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과서 예지자료에 제시된 단어가 퉁퉁, 사탕수수꽃다리, 영산홍 등 익숙하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고 봄놀이로 돌썰기라는 단어도 제시되고 있다. 이 단원의 지도 시기는 5월 달⁹⁾로 국어과에서는 본격적인 단어쓰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음자와 모음자에 대한 글자의 짜임을 공부하고 있는 시기이다. 기초 문식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초 문식성 지도는 학생에게 익숙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해야하며 한글해독이 목적이므로 사용하는 어휘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말하고 듣는 어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1-1 봄단원에 나온 글쓰기 활동은 국어과 1-1(가)에서 배우고 있는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보인다. 통합교과에서는 글자의 자형이나 글자 쓰는 순서 익히기 과정 등이 생략되어 쓰기 활동이 진행될 여지가 있어서 국어과에서 배운 것들을 익히는 과정으로 연계하기가 어려워진다.

3) 통합교과 1-1 <여름> 쓰기 활동 분석

< 표 IV-4 > 1-1 여름 쓰기 활동 분석

학기	연번	교과서	내용	쓰기 내용 분석
1-1	1	여름	가족사진 설명	어절 수준의 단어쓰기
	2		날말 알아맞히기 게임하기	가족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고 초성힌트제공 글자를 쓸 수 있어야 이 힌트가 의미가 있음 이 게임은 글자해독이 완벽하고 가족관계의 명칭을 이해한 학생들에

9) 지도 시기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정보공시 진도표에 따른 기준이다.

			게 유리한 게임임.
	3	가족소개 카드 만들기	쓰기의 양이 많은 학습
	4	가족행사 이름 쓰기	적절
	5	감사카드 만들기	예시문장이 길어서 학생들이 쓰기 부담이 됨.
	6	영상편지 보내기	말글을 즐겁로 옮김
	7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림을 그리고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여름교과서에는 총7개의 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만들고 나서 간단한 설명을 곁들이는 쓰기 활동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만들기 활동과 쓰기 활동이 모두 중요한 학습 형태를 띠고 있다. 여름 교과서에는 본격적으로 문장쓰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¹⁰⁾ 국어과에서 문장쓰기 활동이 직접 교과서에 나타나는 단계는 9단원 그림일기 쓰는 방법을 지도¹¹⁾하면서 1~2개의 문장을 써보는 활동이 나타난다. 감사카드 만들기 활동에서 교과서에 예시자료로 나온 문장은 ‘큰 아버지, 큰 어머니 예쁜 옷을 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윤수인 올림’이라는 감사카드가 제시되어 있다. 영상편지 보내기 활동은 스케치북에 하고 싶은 말(고마운 것, 죄송한 것, 앞으로 해야 할 것 등)을 쓰고 스케치북을 넘기면서 영상편지를 촬영해서 보내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다. 무엇을 쓸 것인가에 고민과 문장으로 써보는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직 국어과의 한글지도 단계와 비교했을 때는 글쓰기 활동이 너무 수준이 높은 감이 있다. 총 7개의 활동 중 국어과의 한글 지도와 비교했을 때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활동은 가족행사 이름 쓰기 정도이고 나머지 활동은 초기 한글을 익히지 않은 학생이 학교에 와서 한글을 깨우친다고 가정했을 때 쓰기 활동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국어과에서 경계하는 학습 부담을 줄 만큼 과도한 학습량이 제시되고 있다.

10) 본 연구가 학교진도표 상에는 6월 중순에 “영상편지를 보내 봅시다”를 배운다.

11) 본 연구자 학교진도표 상에는 7월 하순에 그림일기를 써보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나. 1-2학기 국어과와 통합교과 비교

1) 1-2학기 국어과의 쓰기 활동 분석

< 표 IV-5 > 1-2학기 국어과 쓰기 성취기준 분석

학기	단원 성취기준	단원목표	비고	횟수
1-2	쓰기(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도시기:9월하순경)	이 단원에서도 문장의 개념을 익히기 위해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에 단어를 넣는 수준의 쓰기 활동을 하다가 완전한 문장으로 써보는 활동은 2차시 운영됨. 마지막 차시에 동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3~4개)으로 써보는 활동이 1차시 구성됨.	1
	쓰기(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지도시기:12월초)	겪은 일이 드러나게 글을 쓰기 위하여 겪은 일을 표에 정리하는 단계를 반복 학습한 후에 짧은 글 쓰기가 1번 나옴.	1
	쓰기(5) 쓰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쓰는 태도를 지닌다.	▶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소개할 수 있다. (지도시기:8월중순)	글의 짜임과 낱말의 받침에 대한 학습을 함.	1
1-2학기 10개 단원 중 3개 단원만 쓰기 성취기준이 있음.				

국어과의 1-2학기 쓰기 활동을 분석해 보면 총 10개 단원 중에서 3개 단원에 서만 쓰기 성취기준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실제 문장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문장을 쓰도록 배우는 단원은 2개 단원으로 문장쓰기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적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보는 국어

과의 쓰기 활동(문장의 길이로 2~3개의 문장)에 대한 학습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다. 물론 성취기준이 쓰기 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어과에서 쓰기 활동은 늘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때의 쓰기 활동은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주로 단어, 어절 정도의 쓰기 활동이고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할 때도 문장을 보고 쓰는 활동으로 길어야 문장1~2개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2학기 국어과에 등장하는 쓰기 활동 자체가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의 쓰기 활동량은 아니다. 교사별로 일기검사 등을 통해 쓰기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1-2학기에 그림일기를 지도하는 교사도 있고 줄글을 쓰도록 하는 교사도 있으며 일기검사를 하지 않는 교사도 있다. 글쓰기의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글쓰기 자체를 즐기는 학생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국어과 1-2(가) 교과에서는 받침이 어려운 단어나 된소리, 흉내 내는 말 위주의 단어쓰기 활동과 친구의 행동을 보고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이 나타난다. 2~3개의 간단한 문장을 쓰는 활동이 나온 후 3단원에서 교과서 반쪽분량의 쓰기 활동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1-2(나) 교과서 6단원에는 성취기준상에서는 쓰기가 없지만 교과서 상에는 이유와 결과가 드러나게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을 한 문장으로 써보는 학습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7단원에 와서도 한 문장 전체를 쓰는 활동이 아니라 문장 구성성분의 일부분을 그림을 보면서 채워나가는 형식의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1-2(나) 9단원에서는 겪은 일이나 생각을 그림이나 표로 간단한 단어로 정리학습을 한 후 실제 글을 써 보는 활동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 줄 정도의 쓰기 공간만을 교과서에 배치하고 있다. 1학년 교과서는 쓰기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읽기자료와 문장예시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었으며 실제 자신의 생각을 온전하게 써보는 활동은(최소한 문장 3~4개) 2번 정도 나타나고 있다.¹²⁾

2) 1-2학기 통합교과 <가을> 쓰기 활동 분석

12) 국어교과서에 예시자료나 빈칸 채우기 활동 없이 학생 스스로 문장을 구성하고 글자 쓰기 활동을 말함.

< 표 IV-6 > 1-2 가을 쓰기 활동 분석

학기	연번	교과서	내용	비고
1-2	1	가을	버스에서 지켜야 할 일	3-4개의 문장을 쓰도록 함
	2		영화관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3-4개의 문장을 쓰도록 함
	3		나눔장터에서 내가 나눌 물건과 그 이유 쓰기	적절
	4		나눔장터에서 마음을 나눴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나눴어요. 글쓰기	쓰기 기준 모호
	5		노랫말 바꾸기	라임에 맞추어 고전악보 네 모칸(4줄)을 써야하는 활동
	6		주변의 소리 쓰기	적절
	7		이웃에 도움을 준 경험 쓰기	예시문장 풍부(적절)
	8		미니책자 만들기	사진 붙이고 그림설명 (2~3개의 낱말 사용) 적절

1-2 가을교과서에는 8개의 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장의 개수가 2~3개로 쓰는 활동이 대부분이다. 또한 꾸며주는 말을 사용하여 점차 문장의 길이가 긴 문장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8개의 쓰기 활동 중 6개의 쓰기 활동은 모두 2~3개의 긴 문장으로 쓰는 활동이고, 나머지 두 활동은 낱말쓰기(미니책자를 만들고 나서 책자에 간단한 낱말을 써보는 활동)와 들리는대로 쓰기¹³⁾ 활동이다. 전반적으로 국어과보다 쓰기 활동 양이 많고 문장의 길이 또한 국어과보다 길게 써야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글쓰기 활동 중 3개 정도는 학생들이 글쓰기 부담이 없는 활동으로 여겨진다. 아래의 그림처럼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쓰기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13) 주변의 소리를 들리는 대로 써보는 활동으로 1학기에 배운 자음자, 모음자의 소리 값을 생각하면서 연계하여 지도하면 반복학습이 되어 좋은 활동으로 보여진다.



1-2학기 가을교과서, 44-45쪽

나눔 장터를 열면서 ‘내가 더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마음을 나눴어요/내가 잘하는 것을 나눴어요 칸으로 글쓰기 칸이 나뉘어져 있는데 마음을 나눴어요 칸에 어떤 내용을 써야할지 그 기준이 모호한 글쓰기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글쓰기 활동은 1학년 학생에게는 더욱 어려운 과제 제시가 된다. 문장이나 단어를 쓰면서 글자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쓰기 활동과제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학생들은 쓰기에 심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3) 1-2학기 통합교과 <겨울> 쓰기 활동 분석

< 표 IV-7 > 1-2 겨울 쓰기 활동 분석

학기	연번	교과서	내용	비고
1-2	1	겨울	사진설명하기	우리나라 음식 소개하기

			(1~3개 문장)
2		애국가 쓰기	빈칸 채우기(적절)
3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볼거리, 인물로 병풍 책을 만들기	사진 붙여 설명쓰기 (2~3개의 문장)
4		내가 하고 싶은 겨울놀이 조사하기	교사의 경험에 의한 지도필요
5		노랫말 가사 바꾸기	학생 수준별 가능
6		비밀친구가 되어 도울 수 있는 일 쓰기	2~4문장 쓰기
7		노랫말 가사 바꾸기	2~3개의 어구로 바꾸어 보기

1-2 겨울교과서에는 모두 7개의 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 문장을 구성하여 설명하는 글쓰기 활동이 3개이며, 단순히 단어만 교체하거나 올바른 단어쓰기 활동을 포함하여 3개로 나타나고 있다.

국어과 9단원¹⁴⁾이 되어서야 겪은 일이나 생각을 그림이나 표로 간단한 단어로 정리학습을 한 후 예시 글 자료 없이 순수하게 학생이 창작하는 문장으로 글을 쓰는 활동이 나타난다. 겨울 교과서의 설명하는 글은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글과는 다르지만 예시 글 없이 문장을 구성해서 글쓰기 활동을 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비교한다면 국어과보다 문장을 구성해서 쓰는 활동도 통합교과가 먼저 지도하고 실제 쓰는 횟수도 통합교과가 더 많다.

‘내가 하고 싶은 겨울놀이 조사하기’ 이 쓰기 활동은 교사의 경험에 의한 쓰기 활동 분석¹⁵⁾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다. 2-1학기 국어과와 통합교과 비교

1) 2-1학기 국어과의 쓰기 활동 분석

14) 본 연구자의 학교의 지도 시기는 12월 10일 이후이다.

15) 교사의 경험에 의한 쓰기 활동 분석이란 국어과에서 쓰기방법에 대한 절차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 표 IV-8 > 2-1학기 국어과 쓰기 성취기준 분석

학기	단원 성취기준	단원목표	비고	횟수
2-1	쓰기(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 꾸며주는 말을 사용해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다. (지도시기:6월 하순)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구성하는 학습을 먼저 하고 3~4개의 문장으로 글을 써보는 학습은 1차시씩 2번 구성됨.	1
	쓰기(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 글에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설명할 수 있다. (5월 하순)	설명하는 글을 써보는 활동으로 설명하는 글을 써보기 위해 각각의 내용요소별로 정리하는 학습을 한 후 3~4개의 문장으로 글을 써보는 활동은 1차시씩 2번 구성됨.	1
	쓰기(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 인상 깊었던 일을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로 쓸 수 있다. (지도시기:7월 중순)	일기를 쓰는 방법을 소개하고 실제 일기를 써보는 활동은 1차로 구성됨.	1
	쓰기(5) 쓰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쓰는 태도를 지닌다.	▶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지도시기:4월 중순) ▶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지도시기:7월 중순)	▶ 편지 쓰는 방법을 안내하고 편지쓰기 활동 ▶ 문장을 구성하여 쓰는 활동은 없고 역할놀이 대본을 제시하고 역할놀이 하기 활동하기	2
	2-1학기 11개 단원 중 5개의 단원만 쓰기 성취기준이 있음.			

국어과 2-1(가)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쓰기 부담이 없을 정도의 학습량을 제공하고 있다. 시를 부분적으로 바꿔보거나 단어수준의 마인드맵, 1~2 문장을 쓰는 활동이 보편적이다. 편지쓰기의 방법을 익히고 실제 편지를 써보기 위하여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쓰기 전 활동으로도 전개되고, 쓰기 활동 전략이 본격적으로 지도되고 있다. 3~4개의 문장을 쓰는 활동은 2-1(가)를 배우는 동안 2~3번 학습활동 중에 나타나고 있다. 2-1(나)에서는 설명하는 글을 써보는

쓰기 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며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항목별로 세분화하는 과정을 익히고 이것을 다시 종합하여 쓰는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2학년 1학기에는 본격적으로 글쓰기 전략을 지도하여 글을 쓰는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 써보기, 일기쓰기, 설명하는 글쓰기, 편지쓰기를 지도하고 있다.

2) 2-1학기 통합교과 <봄> 쓰기 활동 분석

< 표 IV-9 > 2-1 봄 쓰기 활동 분석

학기	연번	교과서	내용	비고
2-1	1	봄	나의 몸의 일부분 이름 적기	학습부담 없음
	2		병원 진료과목 쓰기	학습부담 없음
	3		성장 흐름표에 사진 붙이고 사진에 설명 한 문장 쓰기	학습부담 없음
	4		표정에 알맞은 어울리는 한 문장쓰기	학습부담 없음
	5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쓰기	한 문장쓰기-학습부담 있음
	6		나를 소개하는 글 쓰기	교사의 경험에 의한 지도필요 글을 쓰는 절차나 안내 없이 빈 칸만 제시되어 글을 쓰도록 함.
	7		전래동요 노랫말 가꾸기	단어수준 바꾸기 -학습부담 없음
	8		계절의 변화에 따른 모습비교 하기	
	9		봄 날씨 사진 설명-	계절의 모습 한 문장 쓰기
	10		일기예보 놀이	교사의 경험에 의한 지도필요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어 대본을 만들어야 하는데 수준에 맞지 않다.
	11		봄철에 필요한 도구 이름 쓰기	학습부담 없음
	12		5번과 유사함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 한 문장 쓰기	학습부담 없음
	13		봄에 관한 마인드 맵 쓰기	학습 활동은 나의 봄 주제를

				제시하고 주가지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 가족과 함께한 일, 더 해 보고 싶은 일 항목을 제시하고 각각의 가치에 5개 정도의 모두 19개 정도의 어구를 쓰도록 함
--	--	--	--	---

2-1 봄 교과서에는 모두 13개의 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글쓰기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간단한 단어수준에서부터 좀 더 복잡한 쓰기 전략이 필요한 나를 소개하는 글쓰기 활동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1 봄 교과서에 나타난 쓰기 활동은 대체로 쓰기 학습부담에서는 국어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6번 나를 소개하는 글쓰기, 10번 일기예보 놀이, 13번 봄에 관한 마인드 맵 쓰기는 쓰기 전략이 없거나 실제 학생들 수준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2-1학기에 나온 나를 소개하는 글쓰기는 2-2학기 국어 6단원에서 소개하는 글쓰기라는 단원으로 전체 10차시 동안 배우는 내용이다. 통합교과에서 전략적 지도 없이 단순히 소개하는 글을 쓰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다. 소개하는 글쓰기와 일기예보 놀이 활동은 마. 교사의 경험에 의한 쓰기 활동 분석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봄에 관한 마인드 맵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표 IV-10 > 2-1 봄 마인드 맵 작성하기 활동

연번	13	과목	봄	쪽수	126-127쪽	지도시기	4.30-5.4 ¹⁶⁾
성취기준	▶ 2슬02-01 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지도서에 나온 교과서안 내	이 차시에서는 학생이 봄 날씨와 관련된 개인의 경험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을 안내하였다. 봄에 현장 체험 학습 갔던 모습, 봄나물을 캐는 모습, 친구들과 봄비를 맞으며 걷는 모습 등을 제시하여 날씨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봄에 있었던 일을 생각 그물로 그려 봄으로써 자신의 봄철 생활을 정리해보도록 구성하였다.						

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는 활동으로 마인드 맵 형식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써 보는 활동을 하는 수업활동이다.

2-1학기 국어(가)에 제시된 마인드 맵과 비교해보면 그 수준차이가 명백하다. 국어과에서는 연상되는 낱말을 단어수준에서 기록하도록 했지만 2-1 봄 교과서에서는 연상되는 수준이 2-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어구를 쓰도록 하고 있으며 마인드 맵 부가지에 쓰는 단어나 어구도 학생들이 연상되는 수준으로는 성취기준이 높은 편이다. 나의 봄을 주제로 가지위 핵심어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가족과 함께한 일, 더 해보고 싶은 일, 그리고 학생 스스로 쓸 수 있는 빈 꽃모양을 제시하였다. 나의 봄이라는 추상적 주제에 생각을 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핵심어를 채워가는 과정이 어렵게 제시되었다. 마인드 맵에서는 문장을 쓰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는 편인데 이유는 생각을 발산하기 쉽고 그대로 문장을 쓰는 것은 직선식 노트의 폐해를 그래도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교과 지도서 예시에는 더 해 보고 싶은 일은 ‘가족과 함께 옷을 사러 가고 싶습니다.’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 표 IV-11 > 2-1 국어과와 통합교과에 실린 마인드맵 비교

2-1 국어(가) 85쪽	2-1 봄 126-127쪽

16) 지도시기는 본 연구자의 학교의 정보공시에 나타난 진도표에 따른 지도시기이다.

3) 2-1학기 통합교과 <여름> 쓰기 활동 분석

< 표 IV-12 > 2-1 여름 쓰기 활동 분석

학기	연번	교과서	내용	비고
2-1	1	여름	집안일을 정리하여 보고, 그 일을 주로 하는 사람 쓰기	학습부담없음
	2		내가 할 수 있는 집안 일 실천카드 쓰기	예시자료가 풍부하여 학습부담 없음
	3		가족의 생활모습을 그리고 그림 소개하기	1~2개의 문장으로 써보는 활동이나 예시자료가 풍부하여 학습부담 없음
	4		학급 친구들이 가족을 소개한 그림과 글을 보고 다정한 말 써주기	1~2개의 문장쓰기로 학습부담 없음
	5		달팽이집 노래 가사 바꾸기	전체노래 가사를 모두 바꿀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바꿀 수도 있으나 학생들이 써야 하는 글은 달팽이집 전체 노래가사로 단위시간에 쓰는 양이 많다.-노래를 불러야 하는 활동이라 쓰기가 어렵다기 보다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활동으로 구성됨.
	6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2~3문장 정도 쓰기	학습부담 없음
	7		매미소리를 흉내 낸 말을 써보기	1-2학기 가을책 이웃에서 나는 소리쓰기와 똑같은 학습형태임-학습부담없음
	8		물가 친구들을 특징에 따라 무리지어 보고 붙임딱지를 붙이고 분류기준 쓰기	2~3개의 단어 쓰기 -학습부담 없음
	9		나의 건강 계획표 만들기	4~5개의 문장으로 쓰기 -학습부담없음
	10		여름 방학 세워보기	5~6개의 단어 및 어절로 표현하기-학습부담 없음

2-1 여름 교과서에는 모두 10개의 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글쓰기 난도가 다양하게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어과에서도 쓰기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므로 단순한 문장 2~3개의 문장을 써보는 활동은 어려운 활동으로 여겨 지지는 않는다. 다만 달팽이집 노래 가사 바꾸기처럼 노래 가사 전체를 책에 써야하는 활동이 쓰는 활동으로 인해 노래 부르는 시간이 없거나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 쓰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다. 2-1학기 여름 교과서에 실린 글쓰기 양상은 대체로 적절하게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라. 2-2학기 국어과와 통합교과 비교

1) 2-2학기 국어과의 쓰기 활동 분석

< 표 IV-13 > 2-1학기 국어과 쓰기 성취기준 분석

학기	단원 성취기준	단원목표	비고	횟수
2-2	쓰기(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다. ▶바른 말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쓰기 ▶글자 바르게 쓰는 활동과 바른말 사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기	2
	쓰기(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주변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 칭찬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소개하는 글 쓰는 방법을 익힌 후 소개하는 글쓰기 ▶칭찬쪽지 쓰기	2
	쓰기(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인상 깊었던 일을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로 쓸 수 있다	▶인상 깊었던 일을 쓰는 방법을 익힌 후 인상 깊었던 일을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게 글쓰기	1
	쓰기(5) 쓰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쓰는 태도를	▶말의 재미를 느끼며 말놀이를 할 수 있다.	▶수수께끼 놀이를 하는 과정으로 주로 단어나 한 문장 정도 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있음	1

지낸다.			
2-2학기 11개 단원 중 6개의 단원에서 쓰기 성취기준이 있음.			

국어과 2-2(가)(나)교과서에서 문장쓰기의 양으로 보았을 때, 1~2개의 문장은 흔하게 쓰고 있으며 한 페이지가 모두 쓰기 활동으로 채워진 쪽수도 4~5번 나오고 교과서 반쪽 정도를 채우는 쓰기 활동도 2~3번 관찰되고 있다. 2학년 2학기에 접어들면서 긴 글쓰기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혀가고 '4단원 인상 깊었던 일을 써요', '6단원 자세하게 소개해요'처럼 글쓰기 전략을 지도하는 단원이 2개 등장한다.

2) 2-2학기 통합교과 <가을> 쓰기 활동 분석

통합교과에서는 2-2학기 가을 교과서에는 모두 6건의 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겨울교과서에는 쓰기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 표 IV-14 > 2-2 가을 쓰기 활동 분석

학기	연번	교과서	내용	비고
2-2	1	가을	동네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계획세우기	사람 면담하기는 국어과에서는 6학년에서 지도한다.
	2		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뉴스로 전해봅시다. -대본을 만들어서 뉴스를 진행해야 하는 난도가 높은 활동	모둠별로 대본을 만들어 방송연습을 하고 모둠별 발표 지도서예시자료는 2개나옴 -경찰관아저씨, 꽃집아주머니
	3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전해봅시다.	국어과에서 2-1학기 편지쓰는 방법을 익힘
	4		우리 동네 소식지 만들기	동네 소식지를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2학년 학생에게 내용선정이 어려움
	5		가을의 날씨 특징을 알아봅시다	일기처럼 날씨의 풍경을 묘사하는 글쓰기
	6		질서 사전을 만들어 보자-한문장 쓰기(예시자료 풍부)	

2-2학기 가을 교과서에 나타난 쓰기 활동의 횟수는 많지 않으나 쓰기 부담이 갑자기 높아졌다. 1번의 동네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계획을 세우고 직접 면담지를 만들고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일과 동네사람들의 직업을 뉴스로 전달해 보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학생들 활동 수준이나 구성 내용에 있어서 쓰기 활동에 대한 방법과 절차 안내 없이 쓰기 활동과제가 제시됨으로써 답임마다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편차가 큰 수업이 전개될 확률이 매우 높다. 2학년 글쓰기 수준에 비해 높은 과업을 요구하는 학습이라 글쓰기 활동은 빈약할 수밖에 없고 형식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확률이 높은 차시이다. 2번의 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뉴스로 진행해보는 역할놀이 또한 2-1학기 10번 일기예보 놀이처럼 비슷한 수업으로 진행되고 대본 만드는 작업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고마운 분들에게 편지 쓰는 활동 역시 2-1학기에 국어과에서 편지 쓰는 전략을 배웠지만 2-2학기 가을 교과서에 다시 제재로 등장하여 학생들에게 지겨운 글쓰기 활동이 반복되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2-2학기 초에 지도를 하므로 반복학습의 의미로 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면 쓰기 활동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마. 쓰기 활동에 대한 방법과 절차 안내가 필요한 글쓰기 지도 분석

통합교과서 및 지도서에 나타난 쓰기 활동 분석 가운데 2015개정 통합교과에서 쓰기 전략을 제시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글쓰기 지도를 할 때 쓰기 활동에 대한 방법과 절차 안내가 필요한 쓰기 활동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부분만을 다시 추려내어 어떤 글쓰기 형태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은 1~2학년 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과제가 대부분이었다. 통합교과에서는 주로 2-2학기에 쓰기 활동의 수준이 다시 높아졌는데 문단을 구성하여 글 쓰는 능력이 아직은 힘든 상황인데도 문단 수준의 쓰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

< 표 IV-15 > 쓰기 활동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필요한 쓰기 활동 내용

학기	연번	교과서	내용
1-2	1	겨울	내가 하고 싶은 겨울 놀이 조사하기 -놀이이름, 준비물, 놀이방법을 쓰도록 하고 있다. -놀이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사한 내용을 모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내야 하고 절차적 순서에 맞게 써야한다.
2-1	2	봄	나를 소개합니다.
	3		일기예보 놀이 - 일기예보 역할놀이를 위해 각 모둠에서 만든 일기예보판에 맞추어 대본을 작성해야 한다.
2-2	4	가을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계획 세우기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정리하는 것 -만나는 사람에 맞게 인터뷰 내용을 정하는 것 등
	5		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뉴스로 만들어 보는 일 -방송놀이대본을 만드는 활동
	6		고마운 분들에게 편지쓰기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 전하기인데 동 기부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7		우리 동네 소식지 만들기 -우리 동네에 대하여 무엇을 알릴지, 어떤 내용을 쓸지를 고민해야 하고 다음 문장으로 쓰는 활동이 연결되어야 함. 과정 중심 쓰기 활동의 절차가 생략됨

1) 내가 하고 싶은 겨울 놀이 조사하기

1-2학기 통합교과에서 쓰기 활동으로 제시한 연번 1번을 보면 겨울철에 하는 놀이와 운동을 알아보고 자신이 해 보고 싶은 겨울 놀이를 조사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통합교과 지도서 유의점에 보면 ‘교과서 자료를 참고하여 학생들에게 조사하기 과제를 선행하도록 하여 차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차시 활동 전개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래 놀이 또는 겨울 운동으로 주제와 내용을 한가지로 정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학생들이 겨울 운동에 대한 경험이 적을 때에는 조사 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하여 보충 설명해 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도서의 유의점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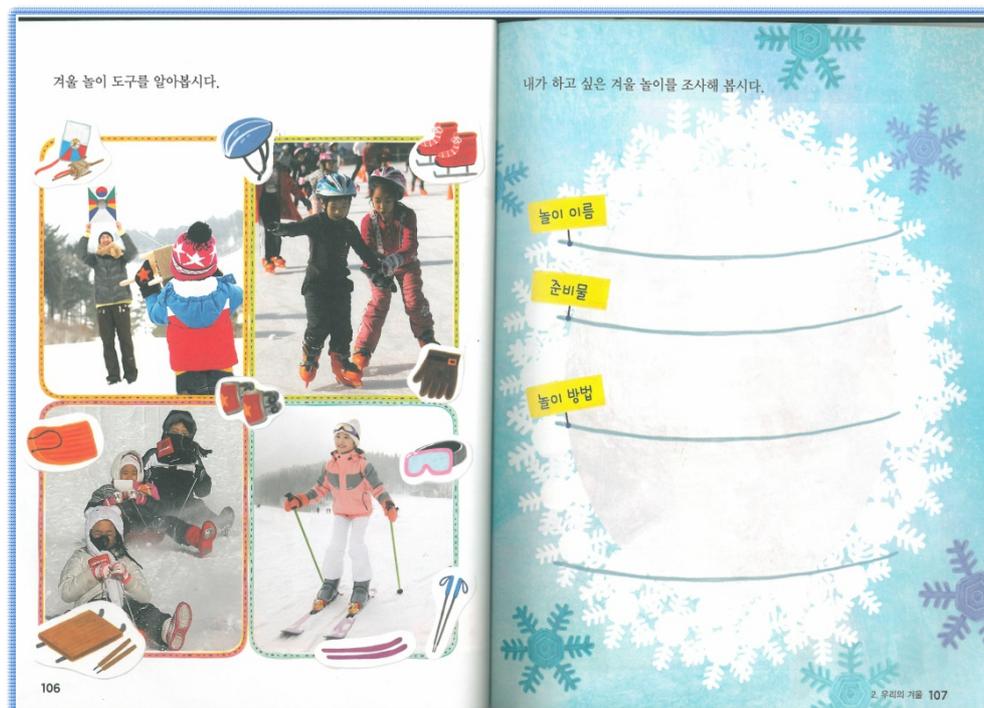
이 차시는 1학년 학생 스스로가 놀이 이름과 준비물, 놀이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야 한다. 국어과 1학년에서의 쓰기 활동은 문장 속에서 단어를 집어넣는 활동이 대다수이고 1학기에 그림일기 쓰기 방법, 2학기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동물에게 하고 말 쓰기, 겪은 일이 드러나게 글 쓰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2~4개의 문장을 써보는 활동 수업이 1학년 교과서 통틀어 3번 나온다.

이처럼 글을 쓰는 활동에 대하여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쓰기 활동만 국어과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1학년 쓰기 활동 수준으로는 자료를 조사하여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쉬운 활동이 아니다. 조사한 놀이 방법을 쓴다고 해도 놀이방법을 어떻게 요약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즉 중요한 문장과 부수적인 문장을 구분해 내고 다시 중심 문장으로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이 활동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1학년 학생들은 중요한 문장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았고 발달 단계상 이 과정에 있지도 아니하다. 그러므로 실제 통합교과서에 제시된 이 차시에서의 수업은 학생들이 해 보고 싶은 겨울놀이를 조사한다기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겨울놀이를 교사가 정리하여 그대로 써보게 하는 활동 이상으로 전개되기가 매우 어려웠다.

< 표 IV-16 > 내가 하고 싶은 겨울놀이 조사하기 글쓰기 활동

연번	1	과목	1-1 겨울	쪽수	106-107쪽	지도시기	10.8-10.12 ¹⁷⁾
성취 기준	<p>▶2슬08-01 겨울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슬08-02 겨울철에 쓰이는 생활도구의 종류와 쓰임을 조사한다.</p>						
지도서에서 나온 교과서안 내	<p>이 차시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 날씨의 특징을 알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본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험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모습 중의 하나인 겨울철에 하는 놀이와 운동을 알아보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겨울 놀이를 조사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겨울 놀이는 겨울에 즐겨 하던 전래 놀이로 겨울 운동은 어린이들이 직접 경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그 범위와 내용을 한정할 수 있다. 겨울 놀이를 조사하면서 놀이에 필요한 준비물을 생각해 보고 옷차림, 놀이 도구 등을 통해서 겨울철에 쓰이는 생활 도구의 종류와 쓰임을 알 수 있다.</p>						



17) 지도 시기는 본 연구자의 학교 정보공시에 게시된 진도표에 따른 지도 시기이다.

2) 나를 소개합니다.

통합교과서에 제시된 이 차시는 국어과에서는 2-2학기 '6. 자세하게 소개해요' 단원에서 총 10차시에 걸쳐 관련된 내용을 익히고 연습하는 과정을 학습하도록 설계되었다. 통합교과서에는 국어교과서에 앞서 지도 시기가 편성되어 있으며 나를 소개하는 글을 1차시에 압축하여 지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글쓰기 과정이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매우 힘들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나를 소개하는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지도 없이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도록 하고 있어 글의 질적 수준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글쓰기 부담감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학생은 '어떻게 써요?'라는 질문을 하고 당황해 한다. 통합교과서 삽화자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밑에 빈 공간만 주어진 상태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국어과에서는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하여 2차시 동안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방법을 익히는 데에도 2차시를 배정하여 쓰기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다른 2차시 동안에는 말을 통하여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난 후 소개하는 글쓰기를 2차시 동안 진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합교과에서는 1차시에 이루어지도록 편찬되어 있어 쓰기 활동이 학생이나 교사 모두에게 어렵고 심도 있는 쓰기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2학기에 국어교과서에서 또 익히게 되니 학습내용의 중복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호기심도 반감되고 '또 나왔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할 때는 단지 연계된 성취기준 뿐만 아니라 구성 내용도 긴밀하게 서로 살펴보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쓰기 활동은 세밀한 설계나 방법적인 훈련 없이 접근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글쓰기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로 인식하기 쉬우며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교사에게 반복하여 물어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 표 IV-17 > 나를 소개하는 글쓰기 활동

연번	2	과목	2-1 봄	쪽수	54-55쪽	지도시기	3.26-3.30 ¹⁸⁾
성취 기준	▶ 2슬01-04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 재능과 흥미를 찾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의 모습을 예상한다.						
지도서에 나온 교과서 안내	이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좋아하는 것이 곧 잘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꿈은 좋아하는 것이나 잘하는 것,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흥미와 재능을 구분 짓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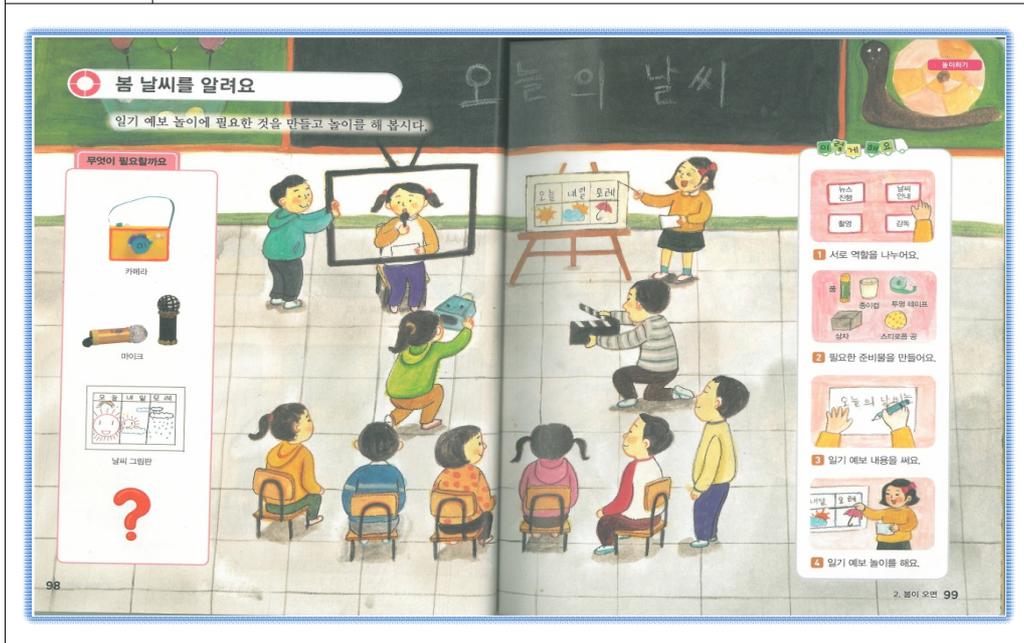
18) 지도시기는 본 연구자의 학교의 정보공시에 나타난 진도표에 따른 지도시기이다.

3) 일기예보 놀이

일기예보 놀이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놀이를 해보는 활동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준비물을 준비해 놓고 이것을 진행시킬 대본을 원하게 된다. 교사가 제공하는 대본은 학생들이 작성한 일기예보판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은 스스로 만든 일기 예보 판을 보면서 교사가 제공한 일기 예보 대본(도움 자료)을 참고로 발표내용과 방법을 친구들과 의논하면서 함께 정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 과정은 스스로 대본을 만들어야 하는 활동인데 대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은 소수 학급에서 우수한 학생들만이 가능한 학습일 확률이 매우 높은 활동이다.

< 표 IV-18 > 일기예보 놀이 글쓰기 활동

연번	3	과목	2-1 봄	쪽수	98-99쪽	지도시기	4.16-4.20 ¹⁹⁾
성취 기준	▶ 2즐02-01 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지도서에 나온 교과서 안내	이 차시에서는 봄 날씨의 특징을 일기 예보 놀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직접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맡을 역할과 놀이에 필요한 준비물을 계획하여 놀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4) 동네 사람들을 만나요

이 차시는 6학년 면담하기 활동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2학년 수준에서 지도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야 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데 인터뷰하는 것도 어렵지만 글을 정리하는 과정도 2학년에게는 성취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된 단원이다.

국어 6학년 1학기 4단원 면담하기 구성은 1-2차시 면담의 특성과 주의할 점 알아보기, 3-4차시 면담의 절차 알아보기, 5-6차시 절차에 따라 면담해 보기, 7-8차시 면담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9-10차시 면담 기사 쓰기 총 10차시 구성이 되어있다. 반면 통합교과에서는 ‘동네 사람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인터뷰 계획세우기, 인터뷰할 때 조심할 점 배우고 나서 동네사람을 인터뷰하는 내용으로 3차시 구성되었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인터뷰한 내용 정리하고 발표하기 1차시 구성되었다. 이 후 ‘우리 동네 직업 뉴스’라는 주제로 2차시 동안 뉴스 기사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차시로 연결되어 있다.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6학년의 면담활동도 치밀한 계획과 면담활동의 사전, 사후 교육활동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단원이다. 면담과 관련된 교육방법과 절차는 통합 교과서에 압축적으로 제시되었고 실제로 학생들이 해야 하는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19) 지도시기는 본 연구자의 학교의 정보공시에 나타난 진도표에 따른 지도시기이다.

< 표 IV-19 > 동네 사람들을 만나요 글쓰기 활동

연번	2	과목	2-2 가을	쪽수	30-33쪽	지도시기	8.27-8.31 ²⁰⁾
성취 기준	<p>▶ 2슬05-04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p> <p>▶ 2바05-02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면서 일의 소중함을 안다.</p>						
지도서에 나온 교과서 안내	<p>이 차시에서는 인터뷰 활동을 통해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떠올려 보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정보와 일의 소중함을 알도록 한다. 동네 사람들과 인터뷰할 때 묻고 답할 수 있는 내용은 교과서에 제시된 말풍선을 참고한다. 또한 동네에 따라 사람들의 직업은 다르므로, 여건에 맞게 수업을 진행한다.</p>						

20) 지도시기는 본 연구자의 학교의 정보공시에 나타난 진도표에 따른 지도시기이다.

5) 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뉴스로 만들어 보는 일

이 차시에서는 동네사람들의 직업을 학생들이 수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여 무리 짓기를 하고 난 후, 이 중에서 직업 하나를 골라 방송 놀이 활동을 통해 대본을 만들어 소개하는 활동을 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실제로 2차시 동안 무리 짓고 대본을 만들어 직업을 소개하는 활동은 교사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활동이었다. 교사가 예시 자료(지도서에는 2개)를 주면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 약간의 단어 및 문장을 수정해서 역할놀이는 가능하였으나 예시자료가 없는 직업에 대한 대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은 글쓰기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뉴스 대본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대본의 내용과 뉴스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 안내 없이 글쓰기 활동을 제시하는 것은 2학년 성취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우 높게 설정되었다.

< 표 IV-20 > 동네 사람들의 직업을 뉴스로 만드는 글쓰기 활동

연번	5	과목	2-2 가을	쪽수	36-37쪽	지도시기	9.3-9.7(1)
성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슬05-04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 2슬05-04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놀이를 한다. 						
지도서에 나온 교과서 안내	<p>이 차시에서는 동네 사람들의 직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무리 짓기 활동을 해 보도록 한다. 학생들이 만든 동네 그림을 활용하거나 우리 동네 인터넷 지도를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고 무리 지어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과 직업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뉴스 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소개하는 활동으로 진행한다.</p>						

6) 고마운 분들에게 편지쓰기

국어과 2-1학기 5단원에서 편지 쓰는 방법에 대한 절차와 글쓰기 활동으로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편지 쓰는 방법에 대한 복습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편지쓰기 활동이 직업 놀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보면서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편지를 쓰도록 지도서에 안내되어 있고 실제 동네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 곤란하면 직업 놀이에 참여했던 친구에게 편지를 쓰라고 안내되어 있다. 직접 관계를 맺은 고마운 분들에게 편지를 써야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너무 억지로 편지쓰기를 강요하는 차시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진정성 있는 글이 나오지 않고 형식적인 감사 인사만이 나오는 글쓰기 수업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 경험이 내재화되지 못하니 글도 가짜 글처럼 쓰는 경향이 있어 좋은 글쓰기 수업이 될 수 없었다.

< 표 IV-21 > 고마운 분들에게 편지 글쓰기 활동

연번	6	과목	2-2 가을	쪽수	56-57쪽	지도시기	9.10-9.14 ²²⁾
성취 기준	▶ 2바05-02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면서 일의 소중함을 안다.						
지도서에 나온 교과서안내	직업 놀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보면서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편지를 쓰도록 한다. 편지를 쓴 후 직접 편지를 전달해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도록 한다. 편지를 쓰기 곤란하면 직업 놀이에 참여했던 친구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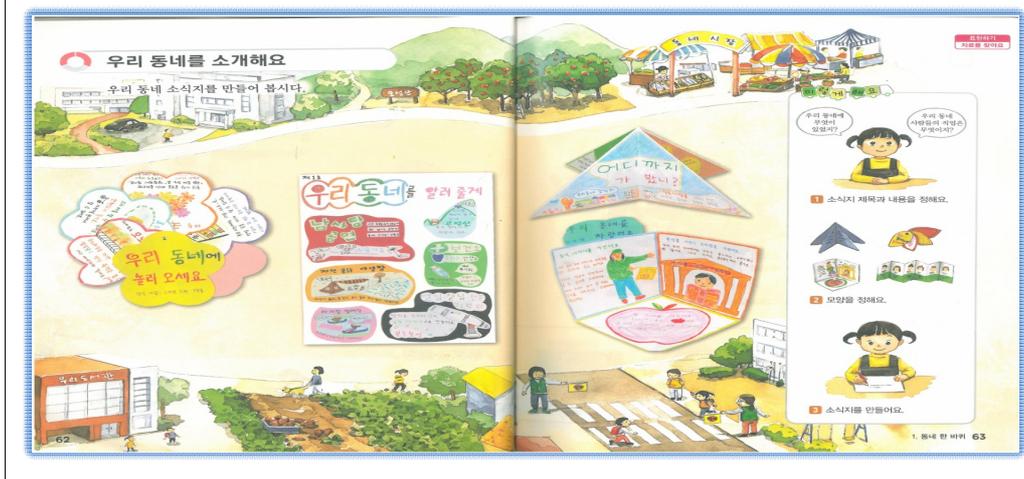
21) 지도시기는 본 연구자의 학교의 정보공시에 나타난 진도표에 따른 지도시기이다.

7) 우리동네 소식지 만들기

우리동네 소식지를 만드는 차시로서 통합교과에서는 표현하기 기능으로 이 차시를 지도서에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쓰기 과정, 즉 글의 내용에 대한 지도는 교사가 안내해 주어야 한다. 2학년 학생들이 느끼는 우리 동네는 도보나 차로 걸어오면서 느끼는 공간이 우리 동네이며 집근처 친구 집까지의 거리가 동네가 된다. 따라서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소재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학생이 경험하는 장소와 책에 예시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학생 주변에 있는 마트가 유명한 곳인지, 이 가게는 유독 싸게 파는 곳인지, 이 곳이 우리 동네에만 있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소개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글 내용은 교사가 써주고 말해주는 상황으로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 표 IV-22 > 우리 동네 소식지 만들기 글쓰기 활동

연번	7	과목	2-2 가을	쪽수	62-63쪽	지도시기	9.17-9.21 ²³⁾
성취기준	▶ 2줄05-03 동네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지도서에 나온 교과서안내	이 차시에서는 우리 동네 모습과 사람들에 대해 관찰하고 탐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동네를 알리는 소식지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에서 가 볼 만한 곳이나 장소, 참여한 행사, 만났던 동네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담을 수 있다. 동네 소식지는 글,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22) 지도시기는 본 연구자의 학교의 정보공시에 나타난 진도표에 따른 지도시기이다.

3. 분석결과 및 논의

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한 쓰기 활동 분석 결과

국어과에 나타난 초등학교 1~2학년에서의 쓰기활동은 쉽고 반복적이며 학생들의 쓰기 활동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학습수준이나 양을 조정하여 구성하였다. 국어과의 쓰기 성취기준은 모두 5개이며 쓰기 학습 요소로는 글자 정확하게 쓰기, 글씨 바르게 쓰기, 완성된 문장 쓰기, 짧은 글 쓰기,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쓰기, 쓰기에 흥미 갖기로 설정되었다. 성취기준의 해설을 살펴보면 받침이 없는 글자에서 시작해서 점차 받침이 있는 글자 쓰기로 나아가고 한두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활동으로 성취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으로는 학습자의 수준을 넘는 낱말이나 문장을 제시하면 쓰기를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낱말이나 문장을 제시하여 쓰기에 흥미를 갖도록 지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너무 어려운 글자를 받아쓰게 하여 국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요소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글을 짧은 글 쓰기를 지도할 때는 서너 문장의 짧은 글을 표현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쓰기가 학생들의 부담이 되거나 자칫 흥미를 잃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최대한 놀이 중심, 활동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합교과서에는 학습내용의 정리 및 보조 활동으로 쓰기 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국어가 도구 교과인 점을 생각한다면 모든 교과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통합교과에서 가장 많이 연계된 영역은 듣기·말하기로 13번 제시되었고 문학은 7번, 쓰기 5번, 읽기 1번, 문법은 연계된 성취기준이 없었다. 국어과의 쓰기 성취기준이 통합교과에 등장하는 시기는 2-1학기 여름과 2-2학기 가을교과서를 배울 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학년 때는 주로 단어 수준의 난도가 문제였다면 2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문장을 구성하는 쓰기 활동의 양이 많아지면서

23) 지도시기는 본 연구자의 학교의 정보공시에 나타난 진도표에 따른 지도시기이다.

학습량 또한 급격히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합교과에서는 문법과 연계된 성취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국어과의 문법 성취기준과 연계가 명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었다. 통합교과 1학년 가을 교과서에는 주변의 소리를 들리는 대로 써보는 활동이 있고, 2학년 가을 교과서에도 매미소리를 흉내 낸 말을 써보도록 하는 쓰기 활동이 있다. 이 부분은 국어과 문법의 성취기준인 '[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와 연계되어 있다. 통합교과에서는 연계된 성취기준만을 기술했을 뿐 국어과의 내용을 어떻게 연계하거나 지도할 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 단순히 문서상의 연계로만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성취기준만을 보고 교사가 수업을 재구성 하는 과정에서 교육 내용과 학습 과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통합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통합교과서 및 지도서에 나타난 쓰기 활동 분석 결과

1) 1-1학기 국어과와 통합교과 비교

국어과 1-1(가) 교과서에는 실제로 단어쓰기 활동이 전혀 없다. 단지 생활단어 글자를 따라 써보거나, 자음자와 모음자를 익히는 과정으로 완성된 글자가 아닌 자음자와 모음자를 써보는 활동으로 교과서가 편찬되어 있으며 1-1(나)에 와서는 교과서에 단어들을 제시하고 이 단어들을 연결하여 문장을 써보는 활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문장을 만드는 학습을 할 때 보통 세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중에서 한 부분(낱말)을 쓰도록 구안되어 있다.

반면 통합교과 봄 교과서에는 쓰기 활동의 횟수는 2번뿐이나 글쓰기 수준은 국어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합교과 봄 교과서에 나타난 단어의 유형은 국어과의 학습 수준과 위계가 맞지 않았다.

2) 1-2학기 국어과와 통합교과 비교

국어과의 1-2학기 쓰기활동을 분석해 보면 총 10개 단원 중에서 3개 단원에서만 쓰기 성취기준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실제 문장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문장을 쓰도록 배우는 단원은 2개 단원으로 문장쓰기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적다.

반면 통합교과인 1-2 가을교과서에는 8개의 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장의 개수가 2~3개로 쓰는 활동이 대부분이다. 8개의 쓰기 활동 중 6개의 쓰기 활동은 모두 2~3개의 긴 문장으로 쓰는 활동이고, 나머지 두 활동은 낱말쓰기(미니책자를 만들고 나서 책자에 간단한 낱말을 써보는 활동)와 들리는 대로 쓰기²⁴⁾활동이다. 1-2 겨울교과서에는 모두 7개의 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 문장을 구성하여 설명하는 글쓰기 활동이 3개이며, 단순히 단어만 교체하거나 올바른 단어쓰기 활동을 포함하여 3개로 나타나고 있다.

겨울 교과서의 설명하는 글은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글과는 다르지만 예시 글 없이 문장을 구성해서 글쓰기 활동을 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비교한다면 국어과보다 문장을 구성해서 쓰는 활동도 통합교과가 먼저 지도하고 실제 쓰는 횟수도 통합교과가 더 많다.

3) 2-1학기 국어과와 통합교과 비교

국어과 2-1(가)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쓰기 부담이 없을 정도의 학습량을 제공하고 있다. 2학년 1학기에는 본격적으로 글쓰기 전략을 지도하여 글을 쓰는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 써보기, 일기쓰기, 설명하는 글쓰기, 편지쓰기를 지도하고 있다.

2-1 봄 교과서에는 모두 13개의 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글쓰기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간단한 단어수준에서부터 좀 더 복잡한 쓰기 전략이 필요한 나를 소개하는 글쓰기 활동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봄 교과서에 나타난 쓰기 활동은 대체로 쓰기 학습 부담감에서는 국어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를 소개하는 글쓰기, 일기예보 놀이, 봄에 관한 마인드 맵 쓰기는 쓰기 전략이 없거나 실제 학생들 수준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2-1 여름 교과서에는 모두 10개의 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글쓰기 난도가 다양하게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1학기 여름 교

24) 주변의 소리를 들리는 대로 써보는 활동으로 1학기에 배운 자음자, 모음자의 소리 값을 생각하면서 연계하여 지도하면 반복학습이 되어 좋은 활동으로 보여진다.

과서에 실린 글쓰기 양상은 대체로 적절하게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4) 2-2학기 국어과와 통합교과 비교

통합교과에서는 2-2학기 가을 교과서에는 모두 6건의 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겨울교과서에는 쓰기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국어과 2-2(가)(나)교과서에서 문장쓰기의 양으로 보았을 때, 1~2개의 문장은 흔하게 쓰고 있으며 한 페이지가 모두 쓰기활동으로 채워진 쪽수도 4~5번 나오고 교과서 반쪽 정도를 채우는 쓰기 활동도 2~3번 관찰되고 있다. 2학년 2학기에 접어들면서 긴 글쓰기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혀가고 '4단원 인상 깊었던 일을 써요', '6단원 자세하게 소개해요'처럼 글쓰기 전략을 지도하는 단원이 2개 등장한다.

2-2학기 가을 교과서에 나타난 쓰기 활동의 횟수는 많지 않으나 쓰기 부담이 갑자기 높아졌다. 쓰기 절차나 방법에 대한 안내 없이 학생들에게 쓰기 활동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 담임마다 편차가 큰 수업이 전개될 확률이 매우 높았다.

2학년 국어과의 쓰기 활동 수준에 비해 높은 과업을 요구하는 학습이라 글쓰기 활동은 빈약할 수밖에 없고 형식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확률이 높은 차시이다.

통합교과의 쓰기 활동과 국어과의 쓰기 활동을 비교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의거리를 제시해본다.

첫째, 통합교과의 쓰기 활동 수준이 국어과의 쓰기 활동 수준과 비교했을 때 위계설정이 맞지 않다.

둘째, 통합교과의 학습내용(제재)과 국어과의 학습내용의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에서는 모두 53번의 쓰기 활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쓰기 활동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필요한 쓰기 활동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가 7번 추출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쓰기 활동에 대하여 국어과의 쓰기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바로 쓰기 활동이 제시됨으로써 교사의 개인적 경험이나 지도 전문성, 학급상황에 따라 글쓰기 활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의미한다. 또한 글쓰기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 쓰기 활동이지만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계가 되지 않은 활동도 모두 21개로 추출되었다. 이는 53개의 활동 중에 약 40%에 달하는 쓰기 활동이 학생들에게 쓰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국어과와 통합교과가 서로 연계하면서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교과서의 수준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뿐만 아니라 이는 교사의 학생 지도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본 연구자가 통합교과의 쓰기 활동 수준을 분석한 결과 국어과보다 통합교과가 어려운 단어 제시와 쓰기 활동량이 많이 배분되었다. 이것은 통합교과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쓰는 활동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됨으로써 통합교과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초한글교육이 강화되면서 1학년 국어과에서는 국어 쓰기 활동으로 기초 문식성교육을 강조한 반면에 1학년 통합교과에서는 어려운 단어쓰기가 많이 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통합교과에서 쓰기 활동을 교과서에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어과와 연계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통합교과 2-1학기 쓰기 활동은 적절한 학습 난도를 보이고 있으나, 2-2학기가을 교과서에는 과도하게 학습수준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었으며 특정단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다.

학생들의 언어 습득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때문에 국어과와 타교과 간 연계 및 통합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국어과가 중심이 되는 도구주의 관점, 타 교과의 내용이 중심이 되는 탈도구주의 관점에서 모두 벗어나 국어교과와 타 교과가 서로 상호작용 하는 새로운 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국어교과를 방법적 차원으로 타 교과를 내용적 차원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교과 간에 서로 연계를 찾아보고 서로의 성취기준도 들여다보는 새로운 차원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통합교과를 국어과의 관점에서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통합교과에서는 국어과와 연계된 성취기준을 밝히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성취기준을 반영한 교과서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별 쓰기 활동에 대하여 난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학생, 교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범교과 쓰기에 대한 직접적인 상호교섭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1-1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1-2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2-1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2-2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1-1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1-2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2-1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2-2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1-1.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1-2.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2-1.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 2-2.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봄 1-1.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여름 1-1.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가을 1-2. 교육부.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겨울 1-2.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봄 2-1.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여름 2-1.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가을 2-2. 교육부.
- 교육부. (2015). 초등학교 1~2학년군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겨울 2-2. 교육부.
- 박영민 외. 쓰지지도방법, 역락, 2013
- 신헌재 외10인.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방법, 박이정, 2005
- 〈논문〉
- 김경애. (2004).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통합교과 통합유형의 변화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2014). **초등학생의 쓰기 능력 발달 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 (2009). **범교과적 쓰기 과제 개발 연구-사회와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섭. (1998). **범교과적 쓰기 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충열. (2011). 주제별 교과서의 등장-초등통합교육과정에 주는 의미. **한국통합교육과정연구학회지**, 5(2), 73-101.
- 박채형. (2012).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통합교육과정연구학회지**, 6(1), 195-213.

참 고 문 헌

- 이경화, 육인경. (2016). 국어교과와 타 교과 간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 **초등교과교육연구학회지**, 25, 95-115
- 이종원, 이경진. (2017). 초등통합교과의 통합에 관한 시론적 논의. **통합교육과정연구학회지**, 11(2), 27-46.
- 이환기. (2015). 초등학교 교과로서 통합교과의 성격 탐색. **통합교육과정연구학회지**, 9(3), 1-27.
- 조상연.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과서의 개발 방향. **통합교육과정연구학회지**, 9(4), 135-159.
- 전제응. (2016). 범교과 쓰기의 구조와 초등학교 범교과 쓰기 활동 분석. **한국작문학회지**, 33, 1-29.

A B S T R A C T

Analysis of Integrated Subject Writing Activities

Jwa, Eun Jung

Major in Element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Je E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riting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subject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language.

In chapter II, we examine the process and nature of the integrated subject, examined the nature of Korean writing education and the guiding principles of writing education, and then examined the integration between the Korean subject and other subjects as a functional subject. Finally, we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iculum literacy and integrated education, and describe how the level of learning learners varies according to how well the language functions and strategies are taught.

In chapter III, two analytical standards were prepared to analyze the

writing activities of the integrated subject. In chapter IV, we analyzed how writing activities in integrated subject are compared with Korean language and writing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Integrated Curriculum for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re are 53 writing activities. Among them, 7 kinds of writing activities have been selected which require 'writing' method in Korean language or that are not in a hierarchical level. Writing activities that are not compatible with the writing method of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or the hierarchy with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are immediately presented in the integrated subject, and the writing activity depends on the personal experience of the teacher,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the class situation. Twenty - one writing activities that are not linked to the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were extracted, which is about 40% of the total. In the 2015 revised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the grade achievement standards for elementary school 1st and 2nd graders were set to emphasize the basic writing skills necessary for students to express their thoughts and learning outcomes in letters while breaking the Hangeul language. By expanding into and out of the city, we strengthened basic and basic education. The reason for not being linked with the achievement standards is that the writing activity level of the integrated subject and the writing activity level of the Korean textbook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

Through this study, some suggestions are made.

First, in the integrated subject, although the achievement standard linked with the Korean language course was revealed, it stayed at the formal level.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with the experts.

Second, it is a burden to both students and teacher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difficulty for writing activities by subject. For effective learning, discussion should begin on curriculum management through direct interaction with cross-subject writing.

Key words: integrated subject, writing activity, achievement standard, integrated textbook, Korean textbook